

— 인천교육을 들여다보다 —

이슈줌인

'이슈 줌인(Zoom In)'은 인천교육 현안을
집중 조명하는 소식지입니다.

이슈평론

- 교육회복 담론의 성찰

이슈진단

- 교육회복으로 가는 길, 인천의 기초(기본) 학력을 말하다.
- 코로나19 교육결손 해소에 대한 인천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
- 인천광역시 도서지역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언
- 세계 교육 위기의 상태: 회복의 길

현장스케치

- 세상에 나쁜 학생은 없다
- 정의적 영역의 긍정적 변화를 통한 수학학습 회복 지원
- 온&오프 마음회복을 위한 관계맺기
- 관계회복 학교 시스템 이야기
- 마음과 마음을 잇는 학교 간 통합교육
- 학교현장과 함께 준비하고 실천하는 교육회복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일 2022년 6월 21일

홈페이지 <http://ice.na.to>

디자인·인쇄 신촌디자인인쇄

[이슈 **줌인**]에 원고를 투고하시거나, 메일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육정책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2-420-8206

✉ baekjaeam@ice.go.kr

※ 본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2022

ISSUE ZOOM IN CONTENTS



- 04** 교육회복 담론의 성찰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박철희



- 08** 교육회복으로 가는 길, 인천의 기초(기본)학력을 말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김요섭
- 14** 코로나19 교육결손 해소에 대한 인천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강혜영
- 27** 인천광역시 도서지역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최환영
- 33** 세계 교육 위기의 상태: 회복의 길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박성한



- 38** 세상에 나쁜 학생은 없다
인천단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
- 43** 정의적 영역의 긍정적 변화를 통한 수학학습 회복 지원
작전여자고등학교 교사 윤세정
- 52** 온&오프 마음회복을 위한 관계맺기
인천마장초등학교 교사 엄주희
- 58** 관계회복 학교 시스템 이야기
신흥중학교 교사 송주미
- 65** 마음과 마음을 잇는 학교 간 통합교육
인천연일학교 중등특수교사 김애란
- 72** 학교현장과 함께 준비하고 실천하는 교육회복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회복지원팀장 윤영준
- 76**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연도별 연구과제목록(2015~2022)

교육회복 담론의 성찰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박철희

● 교육회복 담론의 등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 2년간 한국 사회는 뜻하지 않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감염자와 접촉자들은 일정기간 격리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변화는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수업이 전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원격교육 진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었다. 대면교육에 익숙해있던 학교 현장은 급작스럽게 비대면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적지 않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혼란과 어려움은 학생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은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낯선 상황에 직면하여 장시간 집중의 힘듦, 상호작용 및 기술적 어려

움 등의 곤란을 겪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습지원과 돌봄의 부담이 커졌다. 교육취약계층이 겪는 부담과 곤란은 더욱 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은 앞서 언급한 학습활동의 곤란은 물론이고 불규칙한 식사, 가족 간 불화, 가사 부담 증가 등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애 외, 2020).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학업성취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현장에서 제기되면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의 주요의제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불거진 교육격차 문제는 다양한 쟁점들을 제기하였다. 2020년 2월~12월, 20개 일간지와 3대 방송사에서 보도된 교육격차 관련 뉴스기사와 맷글 등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기기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체제, 대학 입시 준비에서 오는 고3과 재수생 간 격차,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학사운영의 차이, 초등학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운영, 학생들의 학습 습관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기초학력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수업의 질 차이, 평가에서 나타난 격차 등 9개의 교육격차 관련 토픽이 해당 시기 예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연하 외, 2021).

요컨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격차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쟁점화되었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교사, 학부모, 교육학자들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교육격차의 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교육부는 9월 전면 등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 7월 29일 「교육회복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회복이라는 용어는 이전부터 사용되었지만 교육회복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의 본격적 형성은 교육부에서 「교육회복종합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교육회복 담론의 특징

교육부는 「교육회복종합방안」이 2021년 6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21b).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중학교 국어·영어와 고등학교 국어에서 감소한 반면,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은 중학교 국어·영어, 고등학교 국어·영어·수학 등에서 모두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 역시 2019년에 비해 중학교는 4.9%, 고등학교는 3.5%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등교일수가 축소됨으로 인해 학습·정서 등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교육부는 학령기 학생들의 학습·정서의 결손이 단기적으로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 장기적으로는 사회·국가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습결손과 함께 학생의 심리·정서적 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교육부, 2021a). 2021년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회복종합방안」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교육결손 회복의 지원이다.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결손은 물론이고, 심리·정서와 신체건강의 결손을 겪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학생들의 결손 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지원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더 많이 드러난 집단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학생·탈북학생·장애인·저소득가정 학생 등을 이전부터 교육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점을 고려하여 나온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교육 여건의 개선이다. 감염병 대유행을 고려한 과밀학급 해소,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업무효율화, 미래형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기후·생태·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교육부, 2021b). 이들 과제는 학습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직접적 대책이라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교육회복종합방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의 결손과 결핍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담고 있지만 좀 더 나은 교육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회복 사업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회복지원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 9월 8일에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22년 4월 4일까지 총 4차에 걸쳐서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주로 시도별 교육회복 추진계획, 주요과제별 추진 현황, 우수사례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교육회복 담론에서 크게 2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교육회복 담론이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생성·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 및 심리·정서적 결손과 교육격차를 둘러싼 담

론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며, 언론매체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생성·확산되었다. 반면 교육회복 담론은 학습 및 심리·정서적 결손과 교육격차의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성·유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진다.

둘째는 교육회복 담론의 다의성과 모호성이 있다. 교육부가 얘기하는 교육회복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의 결손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부, 2022). 그러나 교육회복종합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교육결손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의 도약을 위한 과제까지 망라하고 있다. 내포와 외연이라는 개념을 빌어서 이야기 하자면 교육회복 개념이 지닌 내포에 비해 교육회복 사업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교육회복 담론과 교육회복사업의 정체성이 다소 모호한 느낌을 주고 있다.

●● 교육회복 담론을 넘어서

교육회복종합방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집중지원(1단계)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2단계 추진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다. 교육회복 사업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2021년에 5조 3,619억 원, 2022년에 9조 4,152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회복이라는

담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회복이라는 담론은 몇 가지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교육회복 담론이 지난 과거 지향성이다. 교육회복 담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학습과 심리·정서적 결손, 교육격차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초래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회복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회복 담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의미로 다가가기 쉽다.

둘째, 교육회복 담론이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전개된 교육의 부정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결손과 교육격차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비대면수업의 인프라와 노하우가 구축·축적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에 한결음 다가섰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미래사회는 비대면 교육이 비정상교육이 아니라 정상교육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사업을 교육회복이라는 담론에 실어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중앙과 지방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교육사업을 교육회복 담론에 녹여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지방정부도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지향적인 교육회복 담론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교육담론을 토대로 대대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듈다.

이제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겪었던 장애와 곤란의 경험을 우리 교육이 도약하는 기회로 만드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 과제들을 교육회복이라는 제한된 담론을 통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담론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참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권연하 외(2021).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격차의 쟁점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625-644.
- * 김경애 외(2020).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 교육부 보도자료(2021a).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발표(2021. 6. 2.).
- * 교육부 보도자료(2021b).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심리 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2021. 7. 29.).
- * 교육부(2022). 모든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안내 자료.

교육회복으로 가는 길, 인천의 기초(기본) 학력을 말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김 요 섭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가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학원,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모는 자녀의 학력을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초등학생 학부모)

“코로나19로 아이들 학습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하는데, 자 유학년제다 뭐다 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으니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네요.”

(중학생 학부모)

“저는 중학생인데 아직 분수 계산도 어렵고, 짧은 영어 문장도 잘 읽지 못하겠어요. 공부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중학생)

“이번에 입학한 학생이 학습의 기초가 되어있지 않아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네요. 이 학생을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교사)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¹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1수준)의 비율이 모든 과목에서 증가하였고, 보통 학력(3수준)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코로나19와 맞물리는 최근 교육계의 화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기초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난 3월, 「기초학력 보장법」(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며 기초학력 문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1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 고2 학생 중 일부(약 3%)를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의 성취도를 1~4수준(기초학력미달, 기초, 보통, 우수)으로 평가하고 있다.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내세우며, AI를 활용한 학력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보조교사(튜터)로 학습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평가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자 제로화, 전반적 학력 제고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선 4기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초등 기초학력 전문담당교사 배치와 같은 공약을 제시하며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회복, 포스트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인천교육회복 차원에서 3대 긴급분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과제를 학습 결손의 회복으로 설정하고, 기초학력 분야의 지원에 집중한다. 인천형 기초학력 학습안전망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결손 지원 강화, 학습 진단 결과 및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학습이력 관리, 방학 기간 학습결손 회복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사전 검토 및 준비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계에서 기초학력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풀리지 않는 숙제다. 현상은 명확하지만, 개인·가정·사회 등 원인이 상당히 복잡하고, 단기간에 성과가 검증되지 않아 투입 대비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초학력은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을 넘어 한 인간의 기본 권리와 복지안전망, 미래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교육의 책무성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 이후 정책 기조에 따라 학생의 삶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요섭a, 2022).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인천교육정책연구소도 2022년 기본연구과제로 「기초(기본)학력 보장 체제 구축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 과제는 인천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과제 공모에서 접수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기초학력 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기초학습 부진아 선별·지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두드림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2013년 이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법적, 정치적, 제도적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사회적 요구와 인천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인천 지역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및 새로운 정책 돌파구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근래 들어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단순한 학습 능력이나 학업성취도, 가장 낮은 수준의 기초, 타 교과 학습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기초, 즉 초등학교 저학년의 읽기, 쓰기, 셈하기 중심의 기초학력을 넘어 모든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학력을 기초학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학력으로 바라보는 보장 차원의 접근,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야 한다는 향상 차원의 접근 등 정부에 따라 그 방향성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기초학력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그 개념을 정

의하기도 하였으나, ‘기초학력’은 개인,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이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학습에 기초가 되는,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확장된 기초학력 내지 기초학력 재개념화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차원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일부는 관련 정책 중 하나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측정하고 판별할 수 있는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김요섭b, 2022).

그동안 우리는 기초학력을 논하며 주로 초등학생 중심의 읽기, 쓰기, 셈하기 등 학력의 최소한의 기초적인 부분, 막연하게 학교 수업에서 달성해야 하는 기초적인 수준 정도를 주로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기반한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은 일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읽기, 쓰기, 셈하기만 할 줄 안다고 학생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아주 기초적인 수준만 갖추게 한다고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기초(기본)학력 관련 법령, 정의, 국내·외의 우수 정책과 사례를 분석하고 인천 교육주체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인천 기초(기본)학력 보장 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인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확장된 기초학력으로써의 기본학력 개념 설정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2. 인천 지역 기초(기본)학력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3.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체 제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맞는 확장된 기초학력 개념 설정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조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문서, 연구보고서, 전문가 의견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개념의 정책적·학술적 변천 과정, 확장된 기초학력 개념의 논의 흐름 등을 탐색할 것이다. 일련의 논의와 분석 과정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 교육 주체 의견 수렴을 통해 확장된 기초학력 개념 설정을 위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초(기본)학력 정책 방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교원, 학부모, 전문가 대상 기초(기본)학력 정책의 인식과 요구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기초학력 분야 관심 학생 및 학부모,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기본)학력 개념 논의, 정책 현황 분석, 정책 인식과 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하며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를 통해 내적·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골자이다.

특히 기초학력전담교사제, 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정책·사업의 실행을 심층 탐구하고자 하며

현재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은 그 도입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다음의 사례들에서 학생 기초(기본)학력 보장의 정책적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전남교육청은 기초학력에 대한 논의를 하며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누가 언제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고민했다. 그 결과 전문성을 가진 정규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전남교육청은 2020년 40명(문해력 34명, 수해력 6명), 2021년 48명(문해력 37명, 수해력 11명)의 전담교사를 68개 초등학교에 추가 배치하여 학생 208명을 개별화 지도하였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문해력과 수해력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60~120시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그리고 매월 실행 연수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학생 지원 사례, 자료 나눔, 개별 연구 활동 자료를 공유한다. 객관적 진단 결과 해당 학년 보통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주 3회 이상 별도의 교실에서 1:1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1:1 대면 개별화 지도로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메웠다. 또한 언어치료나 심리정서 지원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냈고,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책임 지도로 대상 학생의 77%가 학력이 향상되어 기준점수에 도달하면서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교실 수업으로 돌아갔다. 이는 한 시적 보조인력이 아닌 정규교사를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 책임교육을 실시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1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

기도 하였다.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이 기간제교사, 방과후 강사, 대학생 등 비정규직 인력, 한 시적 인력에 일시적인 예산을 지원하며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규교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담임교사에게만 무한책임으로 가는 현재의 방식이 아닌 별도의 시스템을 상상해볼 수 있다. 대학교수처럼 각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기본시수를 설정하고, 기본시수 이외의 수업, 지도 활동을 정규 수업에 준하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면 정규 교원의 책임 지도 방안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 수당 체계 개편 등 교원 정책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에서 단위학교 기본 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 중1 학년 초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영역의 기본학력을 진단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찰로 정의적 영역을 진단한다. 단위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며 학교 안에서 기본학력책임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교 내 다중지원팀을 운영하고 교실 내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복합적 요인 학습 지원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밖 학습도움센터를 활용하여 난독, 경계성 지능을 포함한 복합요인 학생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처리의 말단 기관인 학교의 기능을 자치의 기구로 재구조화하고, 학생들을 맡고 있는 교사가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이 무엇보다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주면서 동시에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 할 수 있다. 교사의 역할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이제는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의 전문성을 넘어 학생 개별 학습지도 및 지원과 각각의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을 연결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이 요구된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유심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센터의 지원 범위와 상주 인력, 프로그램이 학교의 요청을 원스톱 방식으로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단순히 센터만 만들어 놓고 전문 인력이 없거나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또 하나의 전시행정이 되고 말 것이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사이버학습, 1:1 멘토링, 학습캠프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교사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학력 문제에 대해 학교에서 선택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기초(기본)학력 보장체계 구축 및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방적, 전문적, 확장적 차원으로 유아·특수·중등교육 및 다문화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등 영역에서는 고교학점제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며 또한 인천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주체의 요구와 맞닿는 기본학력에 포함될 새로운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기본학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당 학생을 위한 재이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상에서 과목 이수 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목이 너무 어려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수학과 같은 아주 쉬운 단계의 대체 과목을 마련하여 수준에 맞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 표준화된 학습을 넘어 맞춤형 경로형 학습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는 학생을 유급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년에서 최대한 책임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 초, 중학교 교육과정은 이대로 괜찮을까? 초등 고학년 이후에는 선택형 교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학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고교학점제로 고등학교의 책임교육과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기에 초, 중학교 기본학력 보장 체계는 공교육이 최소한 가져가야 하는 물려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대학의 계절학기처럼 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학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방학중 계절학기 프로그램, 학력 캠프 등을 책임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면 지도 방식뿐만 아니라 사이버 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기초(기본)학력 지도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이다.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와 지원시스템의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기초학력 문제는 교사 개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모두와 관련이 있기에 교육주체의 공동 책무성, 학부모와 학교 차원의 노력 방안도 고민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의 학력은 단순히 학습 요인에만 연관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정서, 질병, 가정 환경, 생활 배경 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과 연

결되어 있어 교사 혼자서 해결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학력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의 경우 더더욱 명쾌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학생의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촉진하는 전문교사, 수업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교사 등 인력지원과 겸중된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학습 상담과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본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크게 티가 나진 않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수업 시간, 방과 후, 방학 중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이러한 교사의 노력이 빛을 빛힐 수 있도록 개인별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배움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진단과 지원시스템 강화와 연계된다. 모든 학생이 기본학력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할 뿐 아니

라 그렇지 못한 학생이 기본학력을 갖출 때까지 공교육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사람마다 배움의 속도가 느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면서도 다양한 충위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선택지를 열어주고, 그 학생을 위한 개별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학교, 교육청 등에서 그동안 실행했던 지원 프로그램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적인 논의를 시작해보자.

기초(기본)학력과 관련한 이번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견을 보태주실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 등의 참여를 기다린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교육의 희망을 함께 노래하고 싶다.

—
연구에 관한 의견주실 곳:
032-420-8214, penthos@ice.go.kr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 교육디자인네트워크(2019). [기초학력 관련 논평](#)
- * 김요섭a(2022).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알고 계신가요?. 인천일보 칼럼](#)
- * 김요섭b(2022). [과거로 떠나는 여행. 좋은교사 정책토론회 자료집.](#)
- * 김은수(2016). [기본학력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어떻게 만들것인가?. 교육대통령을 위한 토론회\(2차\) 자료집.](#)
- *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2020 중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운영 계획](#)
- * 전라남도교육청 <https://www.jnedu.kr/news/articleView.html?idxno=42767>
- * 좋은교사운동(2021). [좋은교사 7월호](#)
- * 흥섭근(2021). [코로나 1년이 갈라놓은 아이들의 미래\(다음세대 정책실험실\)](#)
- *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5&fbclid=IwAR1TnPHMhQrXkRH1iOR5Y1kGoeYVb3RhcgvBCctBeaJy-utPiSBpzrOge8>
- * <https://news.v.daum.net/v/20210901153202550>
- * <https://moe.go.kr>

코로나19 교육결손 해소에 대한 인천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

- 인천학생생활종합실태 종단자료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강혜영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쏘아 올린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미래사회 변화와 특징으로 확대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교육”이 거대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2019년 말 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적 대유행 상태인 팬데믹을 선언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2022년 6월 현재는 “잃어버린 2년”으로 표현될 만큼, 혼돈의 연속이었던 시간에 대한 회복과 해소를 위한 노력이 교육계를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특히 다차원적이고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교육의 경우, 코로나19 ‘교육결손의 회복’을 넘어 미래교육 방향에서 ‘교육결손의 해소’와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우리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종단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인천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교육결손 해소에 대한 인천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발생 직후인 2020년, 지속 경과 시점에 해당하는 2021년, 총 3년간의 인천학생 생활종합실태조사 데이터¹를 인천교육 주요 정책을 준거로 재구조화하여 분석한 후, SWOT²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인천학생생활종합실태 종단조사(온라인 방식) 데이터 수집 현황

- 1차(2018년) : 문항 개발 및 티더링
- 2차(2019년) : 2019년 5월~6월 자료수집, 총 6,577명참여(초 3,283명, 중 2,205명 고 1,089명)
- 3차(2020년) : 2020년 10월~11월 자료수집, 총 4,263명참여(초 1,538명, 중 1,463명 고 1,262명)
- 4차(2021년) : 2021년 11월~12월 자료수집, 총 1,690명참여(초 985명, 중 575명 고 130명)

교육결손 해소에 대한 성과 및 한계 분석 결과 보고를 위한 영역과 이에 해당하는 인천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데이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역량발달, 학업발달, 진로발달, 정서발달, 학교교육활동, 보호자의 정서 및 학업지원이고, 둘째, “신뢰받는 안심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일탈행동, 유해환경 안전도, 정보통신 의존도, 건강관리 역량, 우울불안자살사고, 학교생활만족도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학생자치활동 참여, 동아리활동 참여, 지역사회 및 봉사활동 경험으로 재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요소별 문항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타당한 방법의 척도화를 통해 100점 만점의 환산 점수를 제시하고, 문항 수가 1개인 경우 원점수(5점 리커트 척도)를 제공하였다(인천학생생활종합실태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참고).

본고는 코로나19 교육결손 해소에 대한 성과 및 한계 분석을 위한 준거의 타당성 검증 절차가 없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이 단일 시점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다르게 2018년부터 누적해온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해 코로나19 교육결손 해소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

교육결손 해소에 대한 성과

● 역량발달 수준 회복세

역량발달 수준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일시적 감소에서 2021년 상향하며 회복세를 보였다(고등학생 제외). 예를 들어 초등학생 심미적 사고 역량의 경우 19년 56.54에서 20년 55.54↓로 하락하다 21년 57.75↑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특별히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역량에 비해 초·중·고 모두 높은 기저 수준을 나타냈다.

<표1> 역량발달 경향

구분	심미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다문화 수용성			공동체 역량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2019년 6월	56.54	60.31	65.11	73.60	75.84	76.64	82.16	83.73	84.56	72.43	73.58	72.72
2020년 12월	55.54	56.41	63.23	70.92	72.54	75.23	82.58	81.80	82.69	70.00	69.11	70.82
2021년 12월	57.75	60.50	63.23	72.85	72.86	73.42	84.85	82.09	77.16	72.84	70.77	70.69

이슈진단

● 학업발달 수준 회복세

학업발달 수준 역시 2020년 일시적 감소에서 2021년 회복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수업 이해도의 경우 19년 80.40에서 20년 80.39 ↓로 하락하다 21년에는 8.02 ↑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단, 학습습관의 경우 회복의 폭이 다른 요소에 비해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2> 학업발달 경향

구분	수업 이해도			수업 태도			학습 습관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2019년 6월	80.40	75.06	68.87	61.76	58.80	55.76	67.95	66.27	63.59
2020년 12월	80.39	73.94	69.24	60.75	54.30	52.70	64.04	61.14	61.81
2021년 12월	82.02	74.97	68.68	61.93	55.28	54.35	64.94	61.87	62.45

● 진로 발달 수준 회복세

진로 적응성 및 진로 자기이해 발달 수준은 대부분의 학교급에서(중학교 제외) 코로나 직후인 2020년 일시적 하락에서 2021년 회복세를 보였다.

<표 3> 진로 발달 경향

구분	초	중	고
2019년 6월	65.55	60.84	57.59
2020년 12월	60.83	54.79	54.28
2021년 12월	61.46	54.00	56.29

● 교과 교육활동 회복세

수업, 평가, 협력학습, 교사의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교과 교육활동 수준은 코로나 직후인 2020년 일시적 감소에서 2021년 회복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수업 요소의 경우 19년 80.86에서 20년 72.28 ↓로 하락하다 21년 79.55 ↑로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단, 다른 요인에 비해 협력 학습은 전 학년에서 기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였다.

<표4> 교과교육활동 경향

구분	수업			평가			협력학습			교사의 교육활동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2019년 6월	80.86	75.59	72.55	76.15	74.54	71.85	58.68	59.43	59.26	75.56	74.52	73.75
2020년 12월	72.28	72.32	69.87	71.12	68.57	66.85	48.57	50.38	52.94	72.49	72.58	72.00
2021년 12월	79.55	75.20	75.67	74.33	71.90	73.61	55.44	55.80	58.50	74.13	74.63	76.67

●● 비교과 교육활동 회복세

비교과 교육활동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코로나 직후인 2020년 일시적 하락에서 2021년에는 회복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성교육의 도움이 되는 정도는 19년 4.29에서 20년 3.93↓으로 하락하다 21년 4.08↑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다문화 교육, 생명존중교육, 인권교육 등은 19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5> 비교과 교육활동의 도움이 되는 정도 경향

구분	성교육			성평등 교육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진로교육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2019년 6월	4.29	4.04	3.83	4.30	4.00	3.82	4.45	4.12	3.92	4.45	4.12	3.91
2020년 12월	3.93	3.84	3.69	4.12	3.91	3.78	4.25	3.99	3.85	4.25	3.97	3.84
2021년 12월	4.08	3.89	3.84	4.22	3.94	3.82	4.29	4.04	3.99	4.33	4.05	4.02
구분	정보통신윤리교육			생명존중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2019년 6월	4.16	3.99	3.86	4.46	4.13	3.96	4.35	3.88	3.73	4.39	4.04	3.86
2020년 12월	3.99	3.90	3.86	4.33	4.05	3.92	4.23	3.87	3.80	4.25	3.99	3.88
2021년 12월	4.10	3.98	3.96	4.31	4.09	4.11	4.26	3.90	3.90	4.32	4.04	4.06

교육결손 해소의 한계

●● 기저 수준이 낮은 요소

역량발달, 학업발달, 진로발달, 학교 교육활동(교과·비교과)에서 대부분 요소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심미적 역량”, “진로역량”, “수업태도”, “학습 습관”, “협력 학습”은 50점~60점 구간으로 낮은 기저 수준을 보였다.

●● 정서발달 수준의 하락세

정서발달 수준은 2020년 일시적 하락에서 2021년 미미하게 회복하거나 지속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 것이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관계적 만족감은 19년 78.23에서 20년 73.34↓, 21년 72.00↓고, 신체외모적 만족감에서도 19년 64.05에서 20년 57.36↓, 21년 56.80↓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였다.

<표6> 정서발달 경향

구분	관계적 만족감			신체 외모적 만족감		
	초	중	고	초	중	고
2019년 6월	79.61	78.23	76.75	67.86	64.05	63.15
2020년 12월	75.39	73.34	74.57	63.61	57.36	58.45
2021년 12월	77.52	72.00	74.92	64.20	56.80	59.55

이슈진단

● ●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의 하락세

학생발달 전반에 정적 상관이 가장 높은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은 초등학생의 경우 19년 4.29, 20년 4.14 ↓, 21년 4.11 ↓, 중학생의 경우 19년 3.95, 20년 3.78 ↓, 21년 3.68 ↓, 고등학생의 경우 19년 3.78, 20년 3.70 ↓, 21년 3.62 ↓로 전학년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표7>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 경향

구분	초	중	고
2019년 6월	4.29	3.95	3.78
2020년 12월	4.14	3.78	3.70
2021년 12월	4.11	3.68	3.62

● ● 보호자의 정서 지원 하락세

보호자의 정서 지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미미한 회복세(20년 76.29 ↓, 21년 76.93 ↑), 중학생은 하락세(20년 74.27 ↓, 21년 73.41 ↓), 고등학생은 (20년 74.74 ↑, 21년 77.31 ↑)로 상승세를 보여 학교급별 차이가 있었다.

<표8> 보호자의 정서 지원 경향

구분	초	중	고
2019년 6월	79.68	77.06	74.33
2020년 12월	76.29	74.27	74.74
2021년 12월	76.93	73.41	77.31

● ● 보호자의 학업 지원 하락세

보호자의 학업 지원에서 초등학생은 19년 65.78, 20년 64.65 ↓, 21년 62.94 ↓, 중학생은 19년 61.12, 20년 55.79 ↓, 21년 53.57 ↓, 고등학생은 19년 51.12, 20년 56.99 ↑, 21년 53.98 ↓로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단, 고등학생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에 증가했음).

<표9> 보호자의 학업지원 경향

구분	초	중	고
2019년 6월	65.78	61.12	51.12
2020년 12월	64.65	55.79	56.99
2021년 12월	62.94	53.57	53.98

정책적 시사점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 영역의 3년간 종단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발달, 학업발달,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 등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패턴을 보이며, 교육결손 해소에 있어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인천 교육정책의 성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현행 정책의 지속과 확대를 통해 교육결손 해소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둘째, 다문화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인권교육, 성(인지)교육 등 주요 정책이 종단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성과가 검증되었다(높은 수준의 다문화 수용성, 점차 낮아지고 있는 일탈행동 비율, 높아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인식, 인권 및 성인지교육의 효과성 등). 따라서 이와 같은 강점을 확대·확산할 수 있는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셋째, 심미적 역량, 수업태도, 학습습관, 진로 적응성 및 진로 자기이해 발달, 협력학습과 같이 낮은 기저수준을 보이는 영역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거나 확대하여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넷째,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은 수준 및 하락세를 보이는 중학생에(22학년도 고1 포함) 대한 별도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다섯째, 학생생활 전반에 상관이 높은 변수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이 초중고 전체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잠재적 교육결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여섯째, 학교 교육활동 전반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비대면 수업 등 교실 밖 교육환경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호자의 학업 지원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학부모 교육과정 운영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교육결손 해소에 대한 성과

●● 일탈행동의 감소세

일탈행동에 해당하는 비행 행동(담배, 술 등), 사이버 비행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불법 미디어 사용 경험이 코로나 이전(19년)에 비해 경과 시점인 21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단, 19세 미만 시청 불가 표시된 TV 방송 제외이며 자세한 통계치는 보고서 참조).

●● 유해환경에 대한 안전도 상승세

유해환경에 대한 안전도 인식의 경우 “시설이용, 유괴, 미아로부터 안전”, “폭력으로부터 안전”, “악물과 사이버중독으로부터 안전”에서 초·중·고 모두 19년 대비 21년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값 모두 4.0 이상(고등학생 응답 제외)으로 안전도 인식의 정도가 높게 상승했다.

<표10>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도 경향

구분	시설이용, 유괴, 미아로부터 안전			폭력으로부터 안전			악물과 사이버 중독으로부터 안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2019년 6월	4.10	4.00	3.84	4.15	3.96	3.91	4.05	3.98	3.98	4.16	3.98	3.80
2020년 12월	4.01	3.98	3.95	4.11	3.95	3.97	4.16	3.98	3.80	4.11	3.97	3.91
2021년 12월	4.11	4.03	3.97	4.15	4.01	4.01	4.25	4.14	4.03	4.16	4.05	3.89

●● 학교생활 만족도 회복세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19년 76.05, 20년 71.68↓, 21년 74.46↑, 중학생 19년 74.07, 20년 69.35↓, 21년 70.83↑, 고등학생 19년 72.63, 20년 71.23↓, 21년 73.38↑로 학교급별 증감 폭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20년 하락세에서 21년 다시 상승하여 회복세를 보였다.

<표11> 학교생활 만족도 경향

구분	초	중	고
2019년 6월	76.05	74.07	72.63
2020년 12월	71.68	69.35	71.23
2021년 12월	74.46	70.83	73.38

교육결손 해소의 한계

● 언어적 일탈행동의 높은 기저 수준

일탈행동 중 비행행동으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기”,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심한 욕설이나 모욕 피해 경험”과 같이 언어적 폭력이 두드러지게 높은 기저 수준을 나타냈다.

● 성인 대상 TV 방송 시청 증가

일탈행동 중 유일하게 “19세 미만 시청 불가 표시된 TV방송” 이용 비율이 19년 3.8%, 20년 3.0↓, 21년 8.1%↑로, 지난 1년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전학년 정보통신 의존도 상승세

정보통신 의존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19년 29.91, 20년 31.16↑, 21년 34.85↑, 중학생은 19년 36.25, 20년 35.97↓, 21년 37.44↑, 고등학생은 37.61, 20년 40.92↑, 21년 43.02↑로 모두 19년 대비 21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표12> 정보통신기기 의존도 경향

구분	초	중	고
2019년 6월	29.91	36.25	37.61
2020년 12월	31.16	35.97	40.92
2021년 12월	34.85	37.44	43.02

● 건강관리 역량 하락세

건강관리 역량 중 “스스로 인식하는 신체 건강의 상태”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급 학생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균형잡힌 식단”과 “식후 양치질 습관” 역시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인스턴트 섭취량”은 20년 하락했다가 21년 다시 상승(예를 들어 초등학생 19년 2.88, 20년 2.82↓, 21년 3.03↑)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건강관리 역량 경향

구분	신체건강상태			균형잡힌 식단			식후 양치질			인스턴트 섭취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2019년 6월	3.34	3.23	3.16	3.83	3.89	3.85	3.92	3.92	3.97	2.88	3.08	3.09
2020년 12월	3.29	3.16	3.17	3.78	3.74	3.72	3.76	3.83	3.92	2.82	2.96	3.07
2021년 12월	3.24	3.09	2.98	3.75	3.67	3.78	3.73	3.75	3.94	3.03	3.03	3.08

●● 우울·불안 자살사고 상승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우울·불안 및 자살사고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중학생은 21년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단, 고등학생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상승했다 21년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표14> 우울불안 및 자살사고

구분	모든일에 관심과 흥미 없음			모든일에 걱정이 많음			이유 없이 불안함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2019년 6월	1.85	2.15	2.29	2.25	2.73	2.89	2.03	2.42	2.62
2020년 12월	1.92	2.26	2.38	2.58	2.97	3.14	2.18	2.63	2.78
2021년 12월	1.98	2.31	2.10	2.57	3.09	3.02	2.25	2.80	2.51
구분	이유 없이 외로움			이유 없이 슬프고 울적함			자살사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2019년 6월	1.97	2.37	2.58	1.93	2.36	2.55	1.59	1.84	1.92
2020년 12월	2.11	2.54	2.73	2.03	2.48	2.71	1.55	1.81	2.03
2021년 12월	2.21	2.78	2.62	2.13	2.74	2.39	1.65	2.06	1.86

정책적 시사점

‘신뢰받는 안심교육’ 영역의 3년간 종단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 교육정책으로 적극 추진 중인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시민교육, 생활교육, 안전교육 등의 정책 효과가 검증되었다(비행경험, 사이버 비행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불법 미디어 사용 경험 등의 비율의 지속적 감소, 유해환경에 대한 안전도 향상). 따라서 현행 정책의 지속과 확대 방안과 함께 교육결손 해소 차원을 넘어, 미래지향적 교육으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둘째,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진자의 급감과 급증, 백신접종, 변이바이러스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회복세를 보인 것은 학교 스스로의 대응력 향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자치를 강조하는 정책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셋째, 일탈행동 중 다른 영역에 비해 기저 수준이 높은 행동은 대부분 언어를 통한 폭력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폭력의 범위에서 언어적 측면을 강조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넷째,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TVING, 디즈니플러스 등 19세 이상만 시청해야 하는 TV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인천 학생들도 코로나19 직후인 21년 3.0%에서 21년 8.1%로 약 5%의 이용 비율이 상승했다. 이는 학생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미디어 소양 교육을 포함한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다섯째,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학생 스스로 신체건강 상태를 낮게 인식하고 있고 식단 균형이나 식후 양치질 등 건강관리 측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학생의 신체 건강을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일곱째, 초·중·고 학생 대부분 우울·불안 및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교육결손 해소에 대한 성과

●● 학급자치 회복세

학급자치 참여 수준은 초등학생의 경우 19년 3.84, 20년 3.63↓, 21년 3.77↑, 중학생은 19년 3.81, 20년 3.52↓, 21년 3.71↑, 고등학생은 19년 3.70, 20년 3.57↓, 21년 3.85↑으로 전 학년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표15> 학급자치 참여 경향

구분	초	중	고
2019년 6월	3.84	3.81	3.70
2020년 12월	3.63	3.52	3.57
2021년 12월	3.77	3.71	3.85

●● 학교자치 회복세

학교자치 참여 수준의 경우 초등학생은 19년 3.67, 20년 3.44↓, 21년 3.50↑, 중학생은 19년 3.61, 20년 3.32↓, 21년 3.53↑, 고등학생은 19년 3.52, 20년 3.31↓, 고등학생 3.55↑로 전 학년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표16> 학교자치 참여 경향

구분	초	중	고
2019년 6월	3.67	3.61	3.52
2020년 12월	3.44	3.32	3.31
2021년 12월	3.50	3.53	3.55

●● 동아리 활동 적극성 회복세

동아리 활동 참여의 적극성의 경우 초등학생은 19년 4.24, 20년 3.94↓, 21년 4.15↑, 중학생은 19년 4.17, 20년 3.93↓, 21년 4.13↑, 고등학생은 19년 4.17, 20년 3.98↓, 21년 4.13↑으로 전 학년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표17> 동아리 활동 참여의 적극성 경향

구분	초	중	고
2019년 6월	4.24	4.17	4.17
2020년 12월	3.94	3.93	3.98
2021년 12월	4.15	4.13	4.13

교육결손 해소의 한계

●● 동아리 활동 참여 비율 급감

동아리 활동 참여 비율은 2019년 80.9%, 2020년 59.4%↓, 2021년 54.4%↓로 20년 급감 후 21년 역시 감소세가 유지되었다.

<표18> 동아리 활동 참여 비율

2019년 6월	2020년 12월	2021년 12월
80.9%	59.4%	54.4%

●● 지역사회활동 참여 비율 감소세

지역사회활동 참여 및 봉사의 경우에도 동아리 활동과 유사하게 2019년 대비 2020년 급감하였고, 2021년에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아졌다. 특히, 코로나19 여전에서도 실천 가능한 “사회 문제에 인터넷을 활용한 참여 혹은 의견 제시” 역시 참여 비율이 낮아졌다(통계치는 보고서 참조).

정책적 시사점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영역의 3년간 종단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자치, 학교자치 참여 수준의 회복세를 통해 학생자치를 강조하고 있는 인천 교육정책의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방안 탐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동아리를 포함하여 참여 중심 활동이 급감했다. 이에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서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참여 중심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SWOT 분석 결과

내부 강점(Strength) 분석 결과

인천학생생활종합실태 종단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내부 강점은 다음과 같았다. 심미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학생들의 역량 발달이 회복세에 있으며 특히 다문화 수용 성은 학생들에게서 높은 기저 수준으로의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업 발달, 진로 발달, 교과 교육활동, 비교과 교육활동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유해환경 안전도, 학생 자치활동 참여,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모두 회복세를 나타냈다. 비행행동과 같은 일탈행동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내부 약점(Weakness) 분석 결과

진로 역량, 심미적역량, 수업태도, 학습습관, 협력학습 등에서 학생 발달 요소의 기저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정서발달 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 하락세로 나타났고, 언어적 일탈행동은 높은 기저 수준을 보였으며, 성인 대상 TV 방송 프로그램 시청 증가와 정보통신 의존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역량은 하락세로 나타났으며 우울·불안 및 자살사고 상승세 및 참여와 협력 중심의 교육활동이 급감했다. 특히 중학생은 모든 영역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회(Opportunity) 분석 결과

인천학생생활종합실태 종단자료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외부 기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교육자치를 강조하고 학교자치를 지향하는 교육적 기반이 조성되고, 참여 중심 교육활동이 가능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이 드러났다. 마을 및 일반자치와 협업을 위한 체계가 이미 구축되었으며,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이 용이한 제도적·기술적 여건도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위협(Threat) 분석 결과

이러한 교육적 기반 위에 외부적 위협으로 보이는 현상은 디지털 미디어가 학생들에게 과잉 노출되고 있으며 학생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급증하고,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참여와 협력 중심의 교육 활동 계획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또한 보호자의 낮은 학업 지원도 외부적 위협의 요인으로 주목되었다.

●● 전략에 따른 정책 제안

내부 강점과 약점, 외부 기회와 위협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내부 강점과 외부 기회의 조합으로 역량을 확대하는 전략(SO)과 내부 강점과 외부 위협의 조합으로 선택집중 전략(ST)이다. 다음으로 내부 약점과 외부 기회의 조합으로 기회포착 전략(WO)과 내부 약점과 외부 약점의 조합으로 약점보완 전략(WT)이다. 각 전략 별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01. 역량확대 전략(S×O) 제안: 강점을 살려 기회를 염는 전략

코로나19가 유발한 교육결손에 대한 인천교육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소를 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 등 높은 기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학생 주도 모델, 일반자치와의 협업 모델 등 발전된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면 활동이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포함한 일반자치와의 협업을 통해 참여와 협력 중심의 교육활동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거(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02. 선택집중 전략(S×T) 제안 : 강점을 살려 위협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학생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무분별 사용 혹은 의존 심각성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해결’에 대한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수업을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의 계획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의 생활교육과 정서발달을 위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교육적 파트너로서 학생의 정서와 학업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

03. 기회포착 전략(W×O) 제안: 약점으로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한 전략

진로 및 심미적 역량 등 기저 수준이 낮은 학생 발달 요소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 모델을 통한 “(가칭)인천형 나의 삶 사랑하기 프로젝트” 등 학생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울·불안, 자살사고 등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 구축 및 정책 추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편, 기저 수준이 낮은 요소를 포함한 인천형 기본학력 보장제도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서발달이나 정신건강을 포함하여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거나 낮은 기저 수준을 보이는 중학생(22학년도 고1포함) 대상“(가칭) 인천형 중학생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04. 약점보완 전략(W×T) 제안: 약점과 위협으로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전략

학생이 혼자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의미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인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언¹⁾

- 교원 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최환영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이다(교육부, 2017). 2022년 현재 고교학점제를 포함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 중이며, 이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제주, 부산, 충청북도 교육청 등은 올해에, 2023년에는 대구, 충남, 광주, 강원교육청이 해당 시·도 일반고등학교에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거나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 온라인 수업이 갑작스레 들어왔고, 빠른 변화 속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학교는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섬지역이면서 군사접경지역이라 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쌍방향 인터넷이 어려운 인천 도서벽지(서해 5도: 연평도, 백령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의 경우는 지역적 여건상 고교학점제 정책의 안정적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도서벽지는 교사들의 비선호 근무 지역으로 교사 배치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비희망 발령 교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 역시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단질적인 교육 현실에 불신 및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서해 5도 지역의 교원 배치 문제는 고교학점제로부터 기인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존재하며,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벽지 지역 교육격차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면 더욱 악화되고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도서지역의 원활한 교원 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승진가산점 규정 등의 개정, 신규교사의 Two track²⁾ 선발을 통해 도서지역에 (예비)교사들의 근무

1 본 원고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천광역시 도서벽지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방안 탐색」, 최환영(2022)을 재구성한 것임.
2 일반선발과 지역선발로 구분하여 지역 선발의 경우 연露교가 없는 도서 지역에 8년간 의무 근무를 한다.

를 유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운영 측면(‘도서지역 집중이수교육과정’, ‘온리유 클래스’ 등), 원격수업을 위한 정보망 개선사업 측면(인터넷 속도 10~16Mbps→100Mbps), 진로진학지도 지원측면(‘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 등)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근본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해 5도 지역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육 환경 및 복지 측면, 교육과정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살펴보면,

열악한 교육 환경 및 복지 측면에서는 1) 서해 5도 지역의 날씨(바람, 비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인터넷 상황으로 인해 원활하지 못한 원격수업의 여건, 2) 노후화되고 부족한 관사 등 열악한 교사복지 및 학생교실 환경, 3) 비현실적인 교원 도서벽지 수당 등은 교사들이 도서지역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속도가 올라 가진 갔지요. 맞아요.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저희가 나이스 업무를 하다가도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사 인터뷰 내용

“통신이 너무 끊겨서 집중할 수 없는 점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 개방형질문지 내용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측면에서는 1) 신규교사 쏠림 현상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진로 교육 및 상담 활동 제약, 2) 열악한 진로교육 여건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다양한 직·간접 체험의 한계, 3) 상치교사의 지속적 발생, 4) 선택과목이 학교 내 교원 과목 정원으로 구성 및 운영됨으로써 학생이 희망하지 않은 선택과목 개설 등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교육과정 상황들이 나타났다.

“섬 지역 학생 중에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설계가 필요한데 정보들이 부족하다 보니 진로 선택에 애로사항들이 생기거든요.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와 학부모간담회 중 학부모 B 발언

문화적인 이해의 부족 측면에서는 1) 잦은 인사이동 등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2) 도서 지역 학생 성향 및 도민들 인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법령 제정과 정책 및 제도 시행이 도서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오히려 부작용을 놓고 있었다.

“서해 5도 전형은 학생들의 기초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공부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도 중요하지만 대입 서해 5도 전형에 대한 다른 식의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사 인터뷰 내용

도시와 도서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인적 및 지역적 차이, 환경적 배경, 학교 교육과정, 교사 배치 등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한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 제6호를 보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교원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서 조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5도는 교사의 섬 근무 기피 현상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심은 물론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특성이 매우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잣대로 바라보는 정책으로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수업 자체에 흥미를 잃고 모든 과목을 관심 밖 영역으로 간주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선택권 강화라는 고교학점제의 좋은 취지와는 반대로 변화하는 제도로 인해 상·하위권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 지역 간 교육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 학교는 과거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을 때 지역 간 교육격차의 모습들을 경험한 바 있다. 더하여 교육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가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키지 않을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이 내려올 때나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으로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서지역의 교육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며 교육회복에도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도심 지역과의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교육 소외 지역인 도서벽지 지역에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도서지역 교사 배치(수급)의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묶는 섬 내 통합운영학교를, 그리고 도심에 서해 5도 고등학생들을 모아 공동 기숙사 고등학교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교원 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고, 기숙형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 및 운영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도심의 학생들과 교육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도서지역 학생들이 사회성 부족, 학습의 욕 저하와 낮은 경쟁의식으로 도심 학생들과 함께 하는 공동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존 학교체제를 극복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동기화하는 역량과 동료와 함께 하는 역량 등을 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미래형 대안학교 설립방안(무학년제)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내륙에 서해 5도 고등학생 공동 기숙사 운영 / 고3은 방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위탁교육으로 운영 / 고1, 고2 학생은 방학 포함 3/4분기는 위탁교육, 1/4 분기는 원적교에서 교육 / 학생들이 위탁교육 중에는 방과후학습, 야간자율학습, 생활교육을 위해 교원은 자택에서 출퇴근 / 고1, 고2 담임 및 교과 지도 교사는 1/4분기 동안 관사에 거주하며 교육 / 도내 학교는 행정업무, 교사 관리 등을 위한 필수인력 근무 / 위탁교육 운영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저촉됨이 없는지 검토 필요하며, 그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정책전문가 개방형 질문지 내용

둘째,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존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도서지역 학교의 경우 찾은 인사이동과 신규교사 다수 배치로 인해 진로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담임교사제는 폐지하고 진로담임교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영역별 진로지도 교사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진로영역(교사)을 선택할 수 있다. 추후 맞춤형으로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학생 선택에 따른 교사 간 학생수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 교사를 영역별로 배치한 후 학생 수를 안배하여 배정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진로담임교사제는 생활교육과 진로가 연계됨으로써 교육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진로담임교사제를 위한 예비교사 및 신규교사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교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청 연수 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도서지역 학교를 위한 해저광케이블을 설치하여 온라인쌍방향 수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속도를 해결해야 한다. 미래교육에는 코로나19 상황과 상관없이 온·오프라인 블렌디드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언제 어디서든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은 물론 교사도 자신의 학교를 넘어 인근 학교와 함께 수업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중앙 통합 교사 출퇴근 확인 시스템은 물론, 중앙 통합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과 학생 출결(교과시간) 확인 시스템,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브이로그 수업 형식 등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수업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조종레는 메타버스 형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속도가 중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지역은 생태교육 및 해양교육의 최적지일 수 있으며 건강 회복 공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섬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

계를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는 현실과 바람, 비 등 자연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은 사람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교사들은 순회교사 운영을 위한 행정 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은 도서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목적 행정선 건조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옹진군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행정선을 확보하지 못해 순회교사의 운영이 어렵다면 다소 벼거운 일이지만 순회교사의 소속학교를 과목에 따라 학기별로 바꾸어 수업하는 학기집중형 순회교사 운영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섯째,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교사는 교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전문적 역량 등을 요구받고 있다. 도서지역은 신규 교사가 많은 만큼 교사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도서지역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도심에서 근무했던 신규교사 보다 교사의 역량이 매우 높아져서 나올 수 있

도록 특화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투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도서지역 아이들은 학습 의지와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과지도뿐만 아니라 상담, 학급활동 등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도심의 아이들보다 교사의 노력과 헌신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에서는 신규교사가 많은 교육적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이 반복되고 있다. 교원 배치의 중요성이 나오는 이유이다.

여섯째,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드물게 섬에 학교가 있는 광역시다. 여기에 구도심, 신도심이 섞여 있어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다른 시도들 보다도 더 교육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고교학점제, 자유학기(년)제 등 교육 정책들이 일괄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지역별 특색에 맞게 학교 현장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곱째, 도서지역의 여러 아이들이 장래의 직업 희망으로 교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도서지역의 교사 수급 및 배치 측면에서 다소 이상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도서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교사가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향들은 졸업 후 도서지역을 벗어나 도심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 평소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교사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함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8년 의무 복무의 Two track 지역 신규 교사 선발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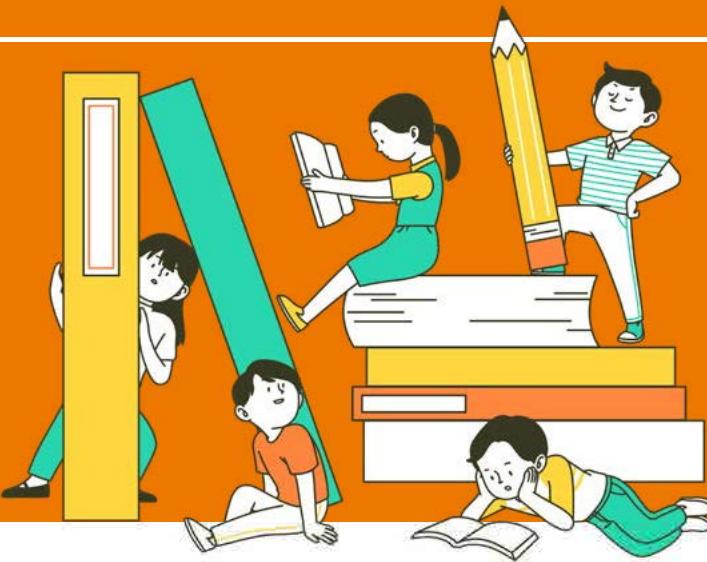
여덟째, 교원의 유인책으로 교원 근무 수당의 현실화 및 다양한 수당 신설(복식학급 수당 등) 등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수당지원이 힘들다면 서해 5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 수당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원 수급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초·중등 통합운영학교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체계 유연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한 유-초등, 초-중등 복수 교사 자격 양성기관 운영, 그리고 소정의 연수 과정 이수에 따른 겸임 발령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인천의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74개의 섬에 119개교가 위치하여 섬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는 2019년부터 '섬지역 교육진흥 기본 계획'을 세워 도서지역의 교육 환경과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서해 5도 지역 포함 강화도, 영흥도 등 도서지역에 대해 학생수 감소, 교원 수급 문제 및 배치 문제, 도서지역 학교만의 미래교육 체계 구축 등에 체계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시된 대안들이 현장에 정책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깊고 확장된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양적·질적 연구들(초·중 통합운영 대안학교 & 기숙형대안고등학교 설립 타당도 연구, 고교학점제를 위한 담임교사 역할 재정립 연구 등)이 필요하다.

도심에 있는 학교는 교실 내 학생의 밀집도가 높다. 달리 생각해보면, 서해 5도의 학교들은 오히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좋은 교육환경과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학습격차, 교육격차를 줄여가는 가장 큰 변인 중 하나는 온·오프라인 수업 능력은 물론이고 혼신과 사명감에 넘치는 교사의 책임감이다. 어찌 보면 도서지역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저 광케이블선이나 시설 좋은 교실 환경보다는 교과 및 상담 전문성을 가진 혼신적인 교사가 가장 필요하다. 적절한 교사 수급에 따른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



세계 교육 위기의 상태 : 회복의 길¹⁾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박성한

코로나-19는 전 세계 교육에 전례 없이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약 16억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원격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수업의 질 차이는 매우 커졌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에 따른 학습 손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습 손실을 보완할 때 학습데이터(learning data)를 토대로 학습자의 학습 손실을 정확히 파악해 학습자의 요구(learning needs)에 맞는 학습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증거기반전략(evidence-based strategies)²⁾이라고 하는데 시의적절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 기반의 증거기반전략은 코로나 이후 회복적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회복적 교육시스템 마련

위기 이후 국가의 재빠른 대처의 필요성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 후 학습 손실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 입안자, 학교 관리자 및 교사는 증거 기반 전략으로 구성된 학습 회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세 가지의 정책적인 수단(policy lever)³⁾을 실행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유니세프, 세계은행 연합보고서(2021.12.) 참고하여 작성

2) Learningsparklab.com. (n.d.). Retrieved May 15, 2022, from <https://www.learningsparklab.com/archives/5677> 증거기반전략은 2022년 3월 개최된 글로벌 에듀테크 박람회(Bett show)에서 영국의 교육부장관 나디자하위에 의해 강조되었다. 그의 기조연설은 “Probably에서 Definitely(가능성에서 명확성으로)”을 주제로 실천되었는데 이는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의미이다.

3) 본 보고서에서 정책적인 수단은 정부와 그 기관이 공공 서비스의 변화,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처분 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법률 및 규정, 정부 목표, 전략 계획, 부칙 및 프레임 워크가 포함된다. *Taking action on health equity: Policy levers in environmental public*(n.d.). Retrieved May 20, 2022, from <http://www.bccdc.ca/>

학습 회복을 촉진하는 세 가지 정책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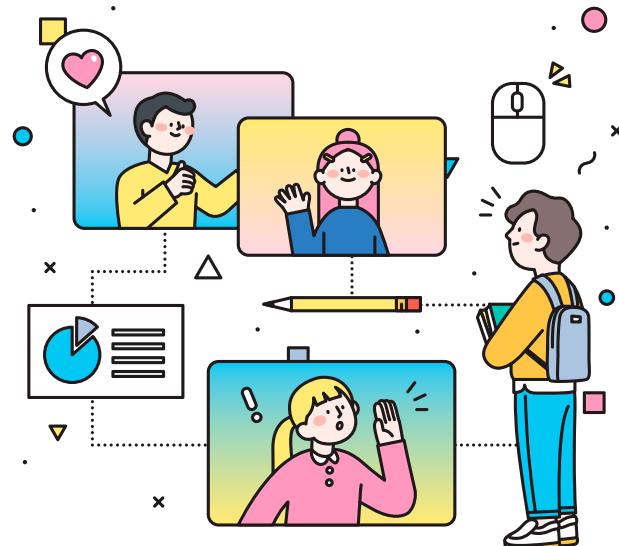


[교사들의 충분한 지원을 보장]



●● 학습 회복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이와 같은 정책의 실천은 결국 교사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수준, 지식 및 기술 격차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형성 평가 기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사교육은 필수적이다. 즉 교사가 디지털 교육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동시에 코로나 이후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위기로부터의 교훈: 부모, 가족 공동체의 역할강화의 필요성

부모와 보호자는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지원되어야 한다. 코로나는 회복적인 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집에서 책읽기(Read@Home)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가정에 읽기 등의 학습 및 놀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야 하는데, 특히 가장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디지털 학습을 발전시키는 활성화 환경을 강화하는 데 체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디지털 학습에 참여할 때 어린이의 심리적 안정감과, 실제적 안전을 확보하고 온라인 폭력, 학대 또는 착취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적시의 신뢰할만한 데이터의 필요성

●● 학습데이터의 위기

학교 휴업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기적절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국가는 기초 학습을 측정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이는 학습 진행과 그들의 투자와 정책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 즉 데이터가 성별, 연령, 위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기타 관련 특성에 따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증거 기반 정책과 계획을 알리기 위해 학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학습데이터 측정의 필요성

학습 손실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떤 학년, 과목 및 그룹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지 이해하고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2. 학습회복 결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될 기준선을 만들수 있다.

●●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실행연구의 필요성

코로나와 관련된 연구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어떤 조건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야한다. 전염병은 미래의 충격을 식별하고 대비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 교육의 학습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 계획의 중요성의 대두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와 다른 충격이 더 흔해짐에 따라 교육 시스템은 더 탄력적이고 적응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 위기는 또한 교육 시스템이 종종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기에 포용과 형평성에 초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 부문 계획 및 체계적인 위험 분석은 향후 혼란에 대한 시스템을 더 잘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학습 회복을 위한 행동

빠른 학습 회복 프로그램 실행의 필요성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로 인해 거의 모든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 불평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정상수업을 진행해서 학습 손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커다란 오해이다. 국가는 학습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록 특정한 개입 세트가 다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빠르게 학습 회복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는 국가가 학습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수업 시간을 확대하며, 증거 기반 교육학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각적인 회복을 넘어서, 교육을 다시 상상하기

강력한 회복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은 진정으로 더 나은 재건을 시작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즉각적인 대처와 동시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더 나은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없다면, 국가들은 맹목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이고 과거의 방식대로 교육 정책을 실천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우선적으로 학습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에서는 Learning Data Compact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선진 국가들의 데이터 기반 학습손실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적절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자의 학습손실에 대한 고려 없이 막연하게 학습을 진행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손실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증거기반전략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회복은 물론 향후 다가올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는 회복 지향적인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 유네스코, 유니세프, 세계은행은 저소득 국가의 교육시스템을 확인하고, 저소득 국가 학생들이 잘 배우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학습 데이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힘을 합쳤다. 세 기관은 모든 국가, 특히 저소득 국가가 2025년까지 학습의 질적 측정의 기준을 하나 이상 갖도록 보장하는 약속인 학습 데이터 콤팩트(Learning Data Compact)에 합의하여 국가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원하였다. Learning data compact UNESCO, UNICEF and the World Bank Unite to end the Learning Data Crisis. UNICEF. (2022, May 4). Retrieved May 23, 2022, from <https://www.unicef.org/partnerships/learning-data-compact>

세상에 나쁜학생 은 없다

—
인천단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



영화 ‘지상의 별처럼’의 한 장면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공부도 못하고, 문제행동만 일으키는 소위 문제아로 낙인찍힌 주인공 이산의 부진 원인이 난독증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산의 부모와 니콤부 선생님이 나누는 대화가 있다.

“이산의 실수에 패턴이 있다는 걸 아세요? 반복해서 틀리는 거요.”

“무슨 패턴이요? 그냥 틀리는 거죠. 공부 안 하려고 평계 대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고, 노력을 열심히 안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일본어가 쓰여 있는 장난감 상자를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내밀며)
“읽어보세요.”

“일본어를 어떻게 읽어요?”

“무례하게 구시네요. 집중해서 읽으세요.”

“아니...(모르는 걸 어떻게 읽어요?)”

(니콤부 선생님이 중간에 말 끊으며)

“자세가 틀려먹었네요. 집중해서 읽어보라고요.”

영화 화면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에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소위 찔렸다. 왜 찔렸을까? 수업 장면에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이산의 아버지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 우리는 제대로 진단하고 있나?

‘우리는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학생의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 3월이 되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년 초에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다. ‘우리는 진단검사를 통해 무엇을 파악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학생의 선수학습에 대한 학습 결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영화의

주인공 이산과 같은 학생을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가 가지는 한계점 때문에 이산을 학습 결손을 가지고 있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학습 부진 학생)으로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산이 가진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난독증은 진단할 수 없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학습 부진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크게 보면 개인 특성, 교실 수업 및 학교 환경 요인, 가정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진단했던 것은 학생의 개인 특성 중 인지적 특성, 더 세분화해 보면 학습 기초능력 결손 정도와 누적된 학습 결손 정도이다. 즉, 우리는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한 가지만 진단 했을 뿐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있었다.

●● 세상에 나쁜 학생은 없다.

TV 프로그램 중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우스갯소리로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가 출연하여 반려견의 문제행동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반려견의 문제행동조차도 문제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학생이 문제행동(학습 부진)에 빠지는 것을 학생의 개인적 책임(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치부해 왔다. 즉, 세상에 나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지 않고 산만한 행동을 해서, 교사가 제시하는 과제를 잘 해오지 않아서, 교사가 가르쳐준 지식을 복습하는 노력이 없어서 학생이 학습 부진에 빠진다고만 생각을 해왔다. 진단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처방은 당연히 학생의 개인적 노력을 높이는 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시 영화 “지상의 별처럼”으로 돌아가 보자. 잘못된 진단(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잘못된 처방(규율이 엄격한 기숙학교 전학)을 받은 이산은 기숙학교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니콤부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난독증 확인)과 처방(난독증 치료를 위한 읽기·쓰기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을 통해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하고,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승하며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닌 천재성이 다분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로 변화된다. 정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적절한 처방이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문제아를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로 바꾼 것이다.

●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지원할까?

단봉초등학교는 다각적인 진단검사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 결손의 원인을 파악하며, 학생의 학습 결손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보정 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봉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확인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통해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된 학생의 이전 연도 교육과정 성취기준별 학습 결손을 파악하여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한 학습 결손을 일으키는 비인지적 정보를 진단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의 학습 준비도 검사를 활용하여 학생의 정서·행동·환경과 관련된 비인지적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단봉초등학교는 다년간의 진단검사 결과를 누적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이 시작되는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학습 결손 누적 정도(얼마나 학습 결손이 지속되고 있는지, 한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여부)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갑자기 학습 부진 학생이 되는 학생(예-3학년 초 진단검사에서 우수학력이었으나 3학년 말 진단검사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판정)의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단봉초등학교는 진단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는 3월 진단검사와 더불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3차 향상도 검사(진단검사와 3차 향상도 검사는 측정학적으로 연계됨)를 활용한 12월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단봉초등학교는 12월 진단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 부진 학생을 차기년도 학년의 각 학급에 균일하게 배치하여 교사들의 학습 부진 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 교사 한 명이 소수의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다각적인 진단과 종합적인 지원이 정답이다.

단봉초등학교에 다니는 하나(가명)는 4학년 기초학력 진단검사 국어, 수학과에서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되었다. 또한 학습 결손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비인지적 검사이인 정서행동환경검사(EBEQ)에서 환경 영역의 가정환경이 ‘하’로 진단 되었다. 그런데, 하나의 학습 이력을 살펴보니 3학년 초 진단검사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우수학력으로 판별된 학생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에 실시된 진단검사에서는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되었으며, 다음 해 3월에 실시된 4학년 진단검사에서 역시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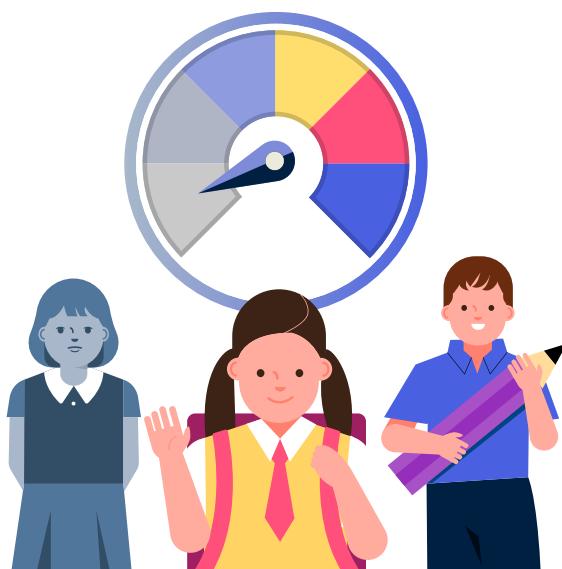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단봉초등학교에서는 하나의 학습 결손이 3학년에서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3학년 초에 우수학력으로 진단받은 학생이 3학년 말에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되었다는 것은 학생이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인지능력 외에 다른 요인이 학습 부진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하나의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비인지적 검사 결과를 살펴보니 정서행동환경검사(EBEQ)의 환경 영역에 포함된 가정환경 요인이 하

로 진단되어 가정환경이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단봉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하나의 어머니가 하나의 3학년 기간 동안 질병이 발생하여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가정에서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가정과 연계하여 자녀의 숙제 확인과 교과서 및 준비물 챙기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이 4학년 내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학급에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하여 협력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3학년 과정의 학습 결손을 보정하기 위해 방과 후에 별도의 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하나(가명)는 4학년 12월에 실시된 진단검사에서 다시 우수학력으로 판별되었으며 현재까지 우수학력을 유지하고 있다.

두리(가명)는 3학년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 모두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되었다. 그러나 다른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이 25문항 중 10개 정도를 정답 하는 것과 달리 두리는 5개 정도를 정답 하는 데 그쳤다. 또한 학습 결손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비인지적 검사인 정서행동환경검사(EBEQ)에서 정서 영역의 불안 ‘상’, 행동 영역의 학습관리 ‘하’, 환경 영역의 가정환경 ‘하’, 교우관계 ‘하’로 진단되었다. 단봉초등학교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두리를 복합적 부진 원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판단하고, 두드림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전문 상담 기관에 정서행동환경검사(EBEQ) 결과를 토대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교우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학급 단위의 교우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정규 수업 시간에 두리를 정서적, 학습적으로 오롯이 도울 수 있는 협력 교사를 투입하여 ‘개별 지원’의 형태로 두리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2학년 과정의 학습 결손을 보정하기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학력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그러나 두리는 다음 연도 진단검사에서도 이전 연도의 학업성취와 비슷한 학업성취도를 보여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단봉초등학교는 2년간의 학습 이력과 비인지적 정보,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학습 부진 원인을 찾기 위해 다른 측면의 접근을 했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난독증 검사에 학생을 의뢰하였고, 두리는 난독증 학생으로 판별 받아, 정규 수업 시간에는 두리를 오롯이 지원하는 협력 교사로부터 수업의 도움을 받고, 방과 후에는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난



현장스케치

독증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담임교사로부터 선수학습 결손 부분에 대한 학력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가정에서는 학생이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지 않도록 칭찬과 정서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현재 두리는 여전히 기초학력 미도달 상태이나 난독증 치료 전 5~6개의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던 것이 현재는 13~14개 정도의 정답률을 보여 기초 학력 경계선 수준까지 학업성취도가 올라왔다.

● 학습 부진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단봉초등학교 사례처럼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단과 중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선수학습의 결손을 보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정서·행동·환경적 요인 등의 비인지적 정보를 파악하여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 부진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개별 학습자들의 학습 부진 원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의적 영역의 긍정적 변화를 통한 수학학습 회복지원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수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작전여자고등학교 교사 윤세정



수학 교사에게 많이 하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먹고 사는 지장이 없지 않나요?’

수학이 싫고 어렵게 느껴져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다.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다산북스, 박성혁)’에서는 수학을 공부하면 머릿속에 여러 수학 공식을 담아두고 꺼내 쓰는 동안 ‘기억력’이, 공식이 도출되기까지의 증명과정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동안 ‘논리력’이, 문제에서 의도한 바를 짚어내고 낱낱이 살펴보는 동안 ‘관찰력’이, 이런저런 접근법을 골똘하게 고민하는 동안 ‘추진력’이, 가끔 문제 푸는 방법을 까먹어서 억지로 푸는 법을 쥐어 짜낼 때조차 ‘창의력’이, 어려운 문제를 풀다 포기하고 해답지를 읽어본대도 ‘이해력’이 높아지고, 지긋지긋한 단순 계산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틀리기 싫어!’하는 본능 때문에 ‘정확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수학 공부는 정신을 단련시켜준다는 것이다.

이 질문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발적 학습 동기 형성을 통해 수학 학습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왜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수학 학습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수학이 반드시 필요한 교과이기 때문에 수학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성향과 성적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수학을 학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이 질문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생의 강점, 약점 분석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불안감을 치유해주어야 한다.

예전부터 수학은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어 수학 학습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영역 신장이 요구되어 왔고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수학 학습 격차는 더욱 심각해졌다.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 진단 검사와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학 학습 방법 안내를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수학과)’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이란?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에 대한 이해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은 교과 학습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학생이 교과(국어, 영어, 수학) 전문가와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교과 학습에 대한 심리, 학습 방법 및 성향을 진단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가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 운영의 목적

- 가.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 사업 운영을 통한 교과별 교사 역량 강화
- 나. 국어, 영어, 수학 교과 학습 코칭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다. 교과 전문성을 가진 지원단 구성을 통한 학습드림코칭 효과성 증대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수학과) 사례

상담을 하면 할수록 학습드림코칭에 있어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듈다. 지금 쓰는 이 글은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을 조금 먼저 시작하게 된 교사가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정도로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상담 자료

● 공통 상담 자료

교과마다 제공되는 상담 자료는 다르다. 수학과는 상담 7일 전까지 상담 교사에게 학생 신청서, Ask Math 검사지, 유니브 자료(내신, 모의고사 성적)를 제공한다.

참가 신청서에는 수학클리닉을 신청하게 된 이유, 수학 교과에 대한 고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 부탁하고 싶은 말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Ask Math 검사지는 Ask Math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고, 수학학습 심리(10문항), 수학학습 방법(10문항), 수학학습 개인적 성향(8문항)의 3가지 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문항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구성	요인명	문항 수	규준표(고등학교)		
			상위	중위	하위
1부 수학 학습 심리	수학학습에 대한 흥미	2	9~10점	5~8점	2~4점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2	9~10점	5~8점	2~4점
	수학 학습에 대한 불안감	2	8~10점	6~7점	2~5점
	수학 학습에 대한 가치인식	2	10점	6~9점	2~5점
	수학 학습에 대한 학습의욕	2	10점	6~9점	2~5점
2부 수학 학습 방법	수학 학습 자기관리	4	17~20점	12~16점	4~11점
	수학 학습 전략	6	27~30점	18~26점	6~17점
3부 수학 학습 개인적 성향	수학 학습 습관	3			
	수학 학습 관리 방법	2			
	수학 학습 통기	3			
총 문항 수		28			

※ 각 문항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함.



●● 추가 요청하면 좋은 상담 자료

처음 만나는 학생과 주어진 50분 안에 가능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상담 자료 이외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상담 시 학생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무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학 진학이나 장래 희망 등으로 상담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MBTI 검사 결과를 활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2018년 수학클리닉 기초과정 직무연수에서 'MBTI 성격 유형 및 유형별 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를 듣고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었지만 상담에 바로 적용을 하지 못했다. 2019년 까지는 수학클리닉 기초과정 직무연수에서 제공 받은 연구 자료를 토대로 공부해가며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학생마다 성향이 분명 다를 텐데 획일화된 방식을 권하고 있는 듯하여 상담 후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다. 2021년 여름에 같은 연수를 다시 한 번 듣는 기회가 생겼고 2021년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상담 자료 이외에 학생들에게 직접 MBTI 검사 결과를 추가 요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대상이 처음 만나는 학생이지만 MBTI 검사 결과는 학생의 성향 파악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학생의 마음의 문을 쉽게 열게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상담 과정에서는 MBTI 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집, 노트, 학습플래너, 학습계획표 등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MBTI 성격 유형 및 유형별 학습 방법

<https://www.16personalities.com/>에서 MBTI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다. MBTI 검사 결과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MBTI 검사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아니면 설부르게 상담을 하면 안된다고 한다. 반드시 관련 연수를 듣고 상담에 활용하시길 당부 드린다.

●● MBTI 성격 유형



INTJ
용의주도한 전략가

상상력이 풍부하며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형



INTP
논리적인 사색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하는
혁신가형



ENTJ
대담한 통솔자

대담하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한
강한 의지의 소유자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방안을 창출하는 리더형



ENTP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지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똑똑한 호기심형



INFJ
선의의 응호자

조용하고 신비로우며 샘솟는
영감으로 지칠 줄 모르는
이상주의자



INFP
열정적인 중재자

상냥한 성격의 이타주의자로
건강하고 밝은 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낭만형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넘치는 카리스마와
영향력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리더형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

창의적이며 항상 웃을 거리를
찾아 다니는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넘치는 열정의 소유자



ISTJ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사실에 근거하여 사고하며
이들의 행동이나 결정 사항에
한 치의 의심을 사지 않는
현실주의자형



ISFJ
옹감한 수호자

소중한 이들을 수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현신적이며
성실한 방어자형



ESTJ
엄격한 관리자

사물이나 사람을 관리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관리자형



ESFJ
사교적인 외교관

타인을 향한 세심한 관심과
사교적인 성향으로 사람들 내에서
인기가 많으며, 타인을 돋보는데
열성적인 세심형



ISTP
만능 재주꾼

대담하고 현실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도구 사용에
능숙한 탐험형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

항시 새로운 것을 찾아 시도하거나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융통성 있는 성격의
매력 넘치는 예술가형



ESTP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벼랑 끝의 아슬아슬한 삶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이들로
명석한 두뇌와 에너지, 그리고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유형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주위에 있으면 인생이
지루할 새가 없을 정도로
즉흥적이며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연예인형

상담을 “너의 MBTI 유형은 만능 재주꾼이네. 대담하고 현실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도구 사용에
능숙한 탐험형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니?”로 시작하면 어떨까?

현장스케치

MBTI 유형별 학습 방법

유형		어울리는 학습 형태
에너지 방향	E Extroversion 외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학습 No! 독서실 No! 인터넷 강의 수강 효율 떨어짐. ☑ 학습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발표, 멘토-멘티 수업이 효과적임.
	I Introversion 내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학습 OK! 온라인 강의에 매우 적합함. ☑ 그룹 과외보다는 개인 과외가 효과적임.
상황 인식	S Sensing 감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세한 설명이 있는 교재나 충분한 보조 자료가 있는 학습 자료 활용이 효과적임. ☑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유사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임. ☑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하거나 실제로 해봄으로써 학습 효과가 증대됨.
	N iNtuition 직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내용의 개요를 잡는 것이 도움이 됨. ☑ 마인드맵을 통한 노트 필기가 도움이 됨. ☑ 틀린 문제의 오류 지점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음. ☑ 자유주제로 연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문제를 더 잘함.
결정 방식	T Thinking 사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학습자료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적극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얻어 진도를 조절해야 함.
	F Feeling 감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 ☑ 배운 내용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연관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됨.
삶의 패턴	J Judging 판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플래너, 학습계획서 등을 작성 ☑ 학습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에게 적합한 양을 계획하도록 지도
	P Perceiving 인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플래너 작성 의미 없음. ☑ 흥미 있는 과목이나 내용을 먼저 학습하는 것이 좋음. ☑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S유형 학생은 성향에 맞는 문제집을 활용하고 있는지와 효율적으로 노트 필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 시 문제집과 노트를, N유형 학생은 성향에 맞게 노트 필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 시 노트를 가져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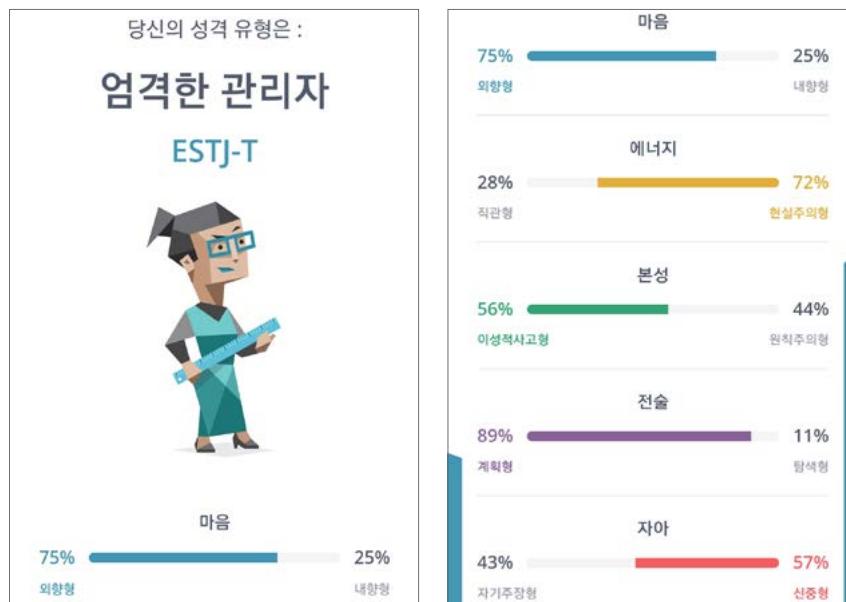
J유형 학생은 학습플래너, 학습계획서 등의 작성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고 있는 학습플래너, 학습계획서 등이 있다면 상담 시 가져오도록 한다.

MBTI 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 사례

상담 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는 선생님과의 상담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필기하면서 들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MBTI 검사 결과는 좋고 나쁨이 없고 너의 타고난 강점을 확인하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MBTI 검사 결과에서는 성향의 %가 중요하다. %가 비슷한 경우에는 두 가지 성향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검사 결과를 화면 캡처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면 된다.

● 상담 학생의 MBTI 검사 결과



● 상담 자료 분석

1) 참가 신청서

- 수학 사교육 경험에 전혀 없음.
- 수학 학습 관련 유튜브, 유명 강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을 학습해 옴.
-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아 수학 불안감이 다소 높은 편임.

2) 수학클리닉 사전 검사지

- 수학정서불안이 다소 높음.
- 수학 문제를 푼 후 바르게 풀었는지 확인하지 않음.

현장스케치

- 문제 풀이 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음.
- 풀이과정을 자세히 쓰지 않음.

3) 성적

- 타교과에 비해 수학 등급이 낮음.
- 정기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모두 수학 3등급

◆◆ 처방

- 성실하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습해 오고 있고, I유형이므로 계속해서 인터넷 강의와 문제집을 통해 학습하기를 권함.
- S유형이므로 인터넷 강의 내용 요약 정리 → 기출 문제 분석 → 유사 문제 풀이 방식을 권함.
- 수학 정서 불안을 낮추기 위해 ‘난 할 수 있다’ 등의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도움이 됨을 조언함. 교사나 부모님의 지속적인 지도와 응원이 요구됨.
- 정기고사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살펴본 후 풀이과정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 학기 중에 활용하고 있는 문제집을 살펴본 후 현재의 개념 위주 복습 대신 자세한 설명이 있고, 기출 문제와 유사 문제가 들어 있는 심화 문제집 1~2권을 풀기로 함.
- 제시한 학습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코칭 다음 날부터 2주간 매일 한 시간씩 심화 문제집에 풀이 과정을 써가며 학습한 후 풀이 과정 중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따로 정리하여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기로 함.

◆◆ F유형 학생과 나눈 메신저 내용이다. F유형 학생에게는 상담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학생: “안녕하세요. 선생님! 11월쯤에 학습드림코칭 받은 학생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제 목표였던 수학을 이번 2학기 때 2등급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제가 하는 방법이 옳다는 확신을 주셔서 더 믿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문제를 풀 때 식을 쓰면서 푸니 시험 당일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1등급까지 도전해 볼께요!!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사: “좋은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 선생님도 작년 말에 상담 사례집 작성을 하라고 해서 ◇◇와 상담한 게 가장 기억이 남아 ◇◇와의 상담 내용을 제출했었어 ㅎㅎ 선생님이 조언해 준 내용을 꾸준히 실천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목표한 등급 받은 것도 너무너무 축하해^^ 올해는 1등급도 받을 수 있게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자~ 수학 공부하면서 고민이 있을 때도, 좋은 소식이 있을 때도 언제든 연락줘~~♡”

학생: “으엉 ㅠㅠ 감동이에요!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겨울 방학 파이팅 해볼께요 감사합니다♡♡”

학생: “선생님 제가 언제가 숙제 마지막 날인지 기억이 잘 안나서 2주 아니면 3주였는데.. 하고 이렇게 기억도 안나는거 3주하자 해서 오늘이 마지막 숙제날이 되었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풀 때 식도 같이 써서 푸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제가 적어던 메모를 보니까 더 공부하기 수월해졌어요! 이제 시험기간이라 다른 문제집에 있는 고난도 문제 더 풀어서 좋은 점수 맞고 올께요!! 요즘 날씨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사: “선생님도 오늘 저녁에 카톡 보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ㅎㅎ 약속한 2주가 지나도 계속 열심히 하길래 2회고사 준비기간 정도되면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해주려고 했거든^^ 우선 선생님 얘기듣고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맙고,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이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쁘다~ 오늘 모의고사 등급도 좀 오르면 좋긴 하겠는데.. 혹시 그대로여도 실망하지 말고~ 수학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과목이거든 ㅎㅎ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멀리서나마 ◇◇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꼭 가길 응원할게~”

학생: “넵 너무 감사해요!!”



나오며

사례로 제시한 것처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상담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기도 하고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도 하며 상담 당일에 개인적인 이유로 늦게 오거나 아예 연락이 되지 않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습드림코칭 컨설팅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채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2021년에 운영된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의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27개교, 300명)결과 학생 98%, 운영교 교사 97%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코칭 선생님들께 보람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학습드림코칭’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수학에 대한 자신감 형성, 정의적 인식 변화를 통한 수학 학습 회복으로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온&오프 마음회복을 위한 관계맺기

인천마장초등학교 교사
엄주희



코로나 2년차, 다시 봄은 찾아왔지만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날’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2021년의 봄에도 등교가 제한되어
새 학년 새 학기의 시작을 원격수업으로 하게 되었고
이렇게 처음 만난 우리 반 아이들은 원격수업 1세대 아이들이었다.

우리 반 아이들 중 몇 명은 과거 친구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117에 신고한 경험이 있었고,
하나의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피해 관련 및 가해 관련 학생이 되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었다.

변해버린 일상 속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관계.

이런 아이들에게 학교와 교실은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안전한 공간을 위한 시작,
관계 회복을 위한 시작인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비록 교실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었지만,
온라인에서도 교실에서도 학생 ‘스스로’ 그리고 ‘함께’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반 이야기는 공감과 소통의 따뜻한 관계맺기부터 시작한다.

온&오프 마음회복을 위한 관계의 짹 티우기

●● 하루를 여는 인사법

하루의 시작을 여는 아침, 교실에서는 눈을 마주치고 밝게 인사하던 아이들이 온라인에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고민 끝에 온라인에서 만날 때 1번부터 순서대로 그날의 아침 인사, 끝인사를 정하기로 했고 “인사를 어떻게 정해요?” 묻는 아이들에게 “오늘 인사는 선생님이 정할게요!” 하고 한 손을 주먹 쥐어 카메라에 뻗으며 “뚱푸맨!”이라고 외쳤다. 뚱푸맨은 학급에서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받은 후 투표로 정한 「쿵푸 아니고 뚱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었다. 책 「쿵푸 아니고 뚱푸」를 학교 도서관에 학급 도서로 신청해서 국어 시간에 함께 읽었고 뚱푸맨은 주인공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와서 힘이 되어주는 캐릭터였다. 힘내서 하루를 시작하자는 의미가 담긴 인사말과 동작임을 알려주니 아이들은 소리 내어 웃었고 한 손을 주먹 쥐어 카메라에 뻗으며 모두 함께 외쳤다. “뚱푸맨!”

22명 모두 각자의 인사 동작과 인사말을 정했고 원격수업 때 줌에서 한 명씩 돌아가며 스스로 그리고 함께 우리 반의 하루를 열었다.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자신만의 인사법으로.



선생님이 정한 인사법



4학년 5반 1번 학생이 정한 인사법

●● 감정을 수용하는 교실

여행에 여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교실은 배움의 여정이자 스스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여행의 베이스캠프와 같은 곳이다. 아이들이 여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실이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교실이 안전한 공간이 되려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감정이 공감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반 교실 문을 열면 감정 출석부가 보인다. 아이들은 교실 문을 열고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적은 원형 자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시한다.

현장스케치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에게 다가가기 전에 감정판을 먼저 살핀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학생의 마음에 다가가 그 행동에 대해 바라보게 되고 아이들은 공감 받는 경험으로 마음을 회복해 나간다.

온라인에서는 책 「42가지 마음의 색깔」을 함께 읽고 오늘 나의 감정을 생각해보고 마음을 나타내는 색을 찾아서 색깔과 이유를 돌아가면서 말해 보았다. 특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한주의 기대감을 담아 색깔을 찾고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공감을 지지를 받으며 힘내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다.



감정 출석부



줄에서 감정 출석부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교실, ‘그랬구나.’ 공감해주는 교실, 아이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교실.

이러한 교실 안에서 마음회복을 위한 관계의 짹은 퉁퉁하게 자라날 것이다.

온&오프 마음회복을 위한 관계의 꽃 피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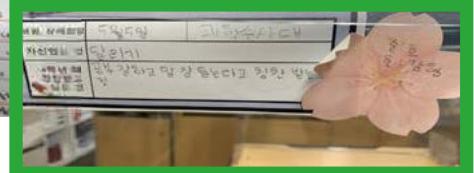
●● 이름 이행시 선물하기

3월 초, 새 학기의 시작, 새로운 아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려는 첫 만남 의식을 위해 아이들 이름 이행시를 선물로 준비했다. ‘첫 만남의 설렘을 잊지 말자, 아 이들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자, 아이들에게 선물같은 존재가 되어주자’ 다짐 하며 미덕의 보석, 가치 단어를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이행시 카드를 아이들 자리 위에 올려놓았고 아이들도 학부모님도 감동의 마음을 전해왔다.

4학년 1학기 국어 1단원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배움을 열면서 김춘수의 시 ‘꽃’을 감상하며 자기 이름의 소중함을 느껴본 후, 짹의 소중한 이름으로 이행시를 지어 봄을 닮은 벚꽃 포스트잇에 써서 선물하며 따뜻한 관계맺기를 시작했다.



선생님이 지은 아이들 이름 이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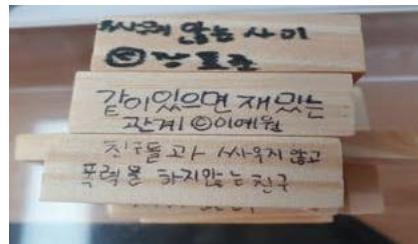


짝 이름 이행시

●● 평화 공동체를 세우는 관계의 탑 쌓기

1년동안 친구들과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젠가피스에 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우리 반 전체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보았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반 친구들과 지낼 때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공감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도 서클 안에서 이야기 나누었다.

한 명씩 자신의 젠가피스를 쌓아올려서 관계의 탑을 완성하며 우리 반 전체의 관계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을 공언하였고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됨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원하는 친구 관계



관계의 탑 쌓기

온&오프 마음회복을 위한 관계의 열매 맺기

●● 평화로운 학급을 위한 공동체 데이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데이를 정하는 학급회의 시간에 놀이 데이, 서클 데이, 컬러 데이를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장스케치

놀이 데이에 몸 놀이(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이먼 세이즈, 조개-진주-불가사리), 마음 놀이(미인 만들기, 그건 바로 너!, 모델 그리기)를 실천하며 함께 평화감수성을 길렀고,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놀이에 담긴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발성, 그리고 열정은 학급 관계망을 재구성하거나 학급 분위기를 전환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서클 데이에는 둑글게 앉아서 공동체 놀이를 한 후 친구에게 고맙거나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나누며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형성된 친밀감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관계를 형성해나갔고 갈등을 해결해 나갔다.

한 달의 마지막 주 수요일, 같은 색 옷을 맞춰입고 오는 컬러 데이에는 서로의 관계를 점검하고 한 달동안 학급 생활을 되돌아보며 좋.아.해. 시간을 가졌다. 한 달동안 좋았던 일(내가 잘한 일), 아쉬웠던 일(부족했던 점), 해야 할 일(다음 달의 목표)을 이야기 나누며 자기 성찰을 통해 더 나은 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는 다짐을 하고 이를 함께 지켜나가고자 책임을 다했다.



무지개빛 컬러데이



●● 추억 액자 만들기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반의 추억 BEST 5 퀴즈를 풀며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지난날을 긍정하면 추억, 부정하면 후회로 남음을 이야기 나누었다. 모둠별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한 장면을 정지 장면과 움직이는 장면으로 표현하며 추억극으로 추억을 회상한 후 개인별로 마음에 드는 추억 사진을 선택해서 그 때의 모습과 마음을 떠올려 사실과 의견을 쓰고 추억 액자를 만들어 전시하고 감상하였다.



관계의 열매를 맺는 추억 액자 만들기

나오며

아이들에게, 교사 스스로에게 우리가 함께 한 시간들이 모두 따뜻했다고 말하고 싶다. ‘따뜻한 봄’에 아직은 낯설지만 따뜻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맺었던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서로 존중하며 평화 공동체를 위한 관계의 탑을 쌓았고, ‘선선한 가을’에 함께 행복하기 위해 평화로운 학급을 위한 날을 채워나갔으며, ‘추운 겨울’에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며 소중한 추억을 마음 따뜻하게 남겼기 때문이다.

변해버린 일상 속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아이들이 스스로 그리고 함께 관계를 형성해나가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감정에는 친절하게, 행동에는 단호하게 아이들과 관계를 맺었고 이 관계에는 아이들의 마음 회복, 관계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이 담겨있었다.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듯이 믿음, 기대, 예측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아이들의 마음과 관계는 단단하게 회복되었다.

아이들 모두에게 안전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과 소통으로 관계 맺으며 회복 중심의 평화로운 학급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관계회복 학교 시스템 이야기

신흥중학교 교사 송 주 미

신흥중학교 회복생활안전부장으로(생활안전부장) 발령을 받은 것이 2020년 3월이다. 평소 비폭력대화와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심이 많아 학급 담임과 학년 부장, 자치 부장으로 다양한 실천을 했고 회복생활안전부장(이하 회복생활부)으로 실천의 범위를 넓혀보고자 했다.



교직원 서로 얼굴색 칠해주기

신흥중학교에 와보니 회복생활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안○경 부장님(회복생활부장 2010~2014), 김○영 부장님(회복생활부장 2015~2019)과 그 당시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고민과 노력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관계를 회복해 공동체를 이루는 관계회복 학교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시스템 속에 선생님들의 고민과 애씀이 있다고 생각 하니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일었다.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모든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회복 학교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계는 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관계회복의 학교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학교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기능적 만남을 전인간적 만남으로 변화시키고 학교를 학습의 공간에서 삶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삶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배움의 과정은 ‘타인과의 만남-경험의 공유-차이의 존중-자기 삶의 배움과 실천’일 것이다.

그래서, 회복생활부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만날지, 각자의 경험을 어떻게 나눌지, 서로 어떻게 존중을 실천하고 배움으로 이어갈 지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였다. 회복생활부에서 기획하는 활동들이 일회성 행사처럼 보여도 일 년을 함께 보내고 나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도록 노력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분명한 철학과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야 했는데, 신흥중학교가 추구하는 관계 회복 시스템은 ‘서클로 만나는 공동체’의 철학이다.

서클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동등한 관계라는 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큰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기초 철학으로 하며, 결국 서클 구성원 모두는 함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서로 지지하며, 서로 돋는 따뜻한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신흥중학교 회복생활부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만나고 공유하는 활동을 꾸준히 기획하고 실천하였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 서클로 따뜻하게 관계맺기

지난 2년, 코로나19가 학교를 멈춘 듯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큰 혼란 속에서 구성원들 모두 긴장과 불안감, 무력감을 겪고 있었다.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은 고립되어가고 있었고, 해보지 않았던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며 겪는 어려움 속에서 선생님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현장스케치

학생 없는 입학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하면 따뜻하게 환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온라인 서클’을 계획하였다. 서클 진행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대하여 온라인 회의 공간에서 만나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구성하여 담임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 서클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서클이 익숙하지 않아 진행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들을 만나고 온라인 공동체 게임을 하며 잠시라도 교류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 서클 활동은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한 번씩은 필수로 진행하였고, 더불어 담임선생님과 공동체 약속 정하기 서클, 약속 점검하기나 신뢰 서클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서로 소속감과 연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학급온라인서클

교직원 만남의 날, 밝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만나기

신흥중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교직원 서클 대화 모임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학기를 운영하다보면 다른 급한 일정들이 잡혀 거의 2달에 한 번 진행되기도 하는데 한 학기에 두 번은 꼭 서클 대화를 하게 된다. 서클 대화 시간에는 교직원 간 서로의 근황 및 어려움 등을 나누며 서로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해간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 모두 지쳐있는 시기에 우리가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만나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경험이 좋을 것 같아 서클대화의 날에 특별한 경험을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였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티셔츠를 염색하고 티셔츠가 마르는 동안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 한잔과 가벼운 수다는 모두에게 힐링이 된 기적같은 시간이었다.



교직원 만남의 날에는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 직원 선생님들을 초대하여 함께 활동한다. 역할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만나고 어울리는 시간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되고, 업무협조도 서로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 중 하나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주무관님, 주사님, 실무사님의 모든 호칭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통일하고 수평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즉흥공감극장’, ‘서로 얼굴 그려주기’, ‘교직원 달고나 뽑기 만들기의 날’, ‘대의원 서클 교육’, ‘교직원 서클 진행 연수’ 등 다양한 학생 교육과 교사 연수, 만남의 날 활동이 진행중이다.



갈등 속에서 관계 회복하기

갈등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윤리적인 경계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하면 관계는 깨지고 공동체는 경직된다.

코로나19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날이 줄어들어 학교폭력이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른 학교와 얹혀 더 큰 사건이 발생하곤 했다. 지난 2년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어떻게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지 고민이 커던 시기였다.



또래 조정자 활동으로 학생들 갈등 스스로 해결

신흥중학교에서는 위클래스 선생님이 또래조정 자율동아리를 운영하신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기관 강사님들에게 또래조정 교육을 받아보았는데,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또래조정 기술은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금의 기관과 연결하여 1,2,3학년 학생들이 또래조정을 연습하고 적용하고 있다.

또래 학생, 대의원, 교사들 모두 또래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면 2~3일 안에 또래조정자가 배정이 되고, 또래 조정 날짜가 정해진다. 주로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며 한 학년 선배가 진행을 하게 된다.

또래 조정부 친구들이 갈등이 있는 친구들에게 또래조정을 권유하고, 담임교사와 수업담당 선생님이 또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 중 사소한 시비가 오갔을 때, 쉬는 시간 복도에서 면살잡이를 하는 학생들이 생겼을 때, 교사가 직접 조정하기보다 또래조정 학생들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조정하는 학생들,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 모두의 성장과 배움에 도움이 되었다. 또래조정에 조정을 받았던 아이가 조정과정에 흥미를 느껴 다음 학년 또래조정자 교육에 참여하고 조정자가 되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살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일어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보면 신흥중학교의 또래조정 학생들과 조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삶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의 관계 회복

학생들 간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엄격한 사안처리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 안에서도 당사자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다.

‘회복적 서클’(갈등이 일어났을 때 평화적으로 갈등을 다루는 서클)의 ‘사전 서클-본 서클-사후 서클’의 중요한 요소들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적용한다.

학교폭력 당사자를 자신과의 관계 회복하도록 돋기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중 사안 발생 경위서 작성의 단계에서, 회복적 서클의 사전 서클 ‘공감하기’가 이루어진다. 이때의 공감은 이 학생의 행동에 옳다고 편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했는지, 다른 친구에게 그 당시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등 그 당시에 학생이 진심으로 원했던 마음을 진솔하게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다는 행동 언어이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자존감과 소속감이라고 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려고 할 때 문제 행동이 드러난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사안 관련학생들과 사전서클로 만날 때 가장 유념할 것은 자신의 진심과 만날 수 있도록 돋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과 공감하는 힘을 가진 학생은 상대방의 이야기도 공감으로 들을 수 있다.

학교폭력 당사자를 관계 회복하기

그렇게 자신을 만나고 지지받은 학생은 ‘본 모임(회복적 서클)’에서 자신이 피해를 일으킨 상대에게 그때의 자신의 진심을 진솔하게 말하고 이해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솔직한 자기표현은 구차한 변명이나 진심 없는 사과표현보다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전해진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도 함께 울린다.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겪은 고통을 온 힘을 다해서 전달 했을 때 상대방도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받아들인다. 그 지점이 되면 서로 구

태여 사과와 용서의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해의 순간이 온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양쪽 학생들 모두 자존감과 힘이 채워지고 관계가 회복된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은 전담기구 회의에서 가해관련 학생이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관련 학생과 학부모님이 직접 대화를 해서 사과를 받겠다는 용기를 낼 때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가 되는데, 이때 ‘본 모임’의 형태로 진행한다.

인상적인 것은 대화모임이 끝난 후 피해 관련 학생의 발언이었다. ‘제가 상대학생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만나고 소통하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다시 깨닫는다.

관계회복 시스템 유지 비결

신흥중학교의 관계회복 학교시스템을 정리해보자면, 2월 워크숍부터 서클 대화로 시작하고 서클 대화로 마무리를 한다. 3월 첫날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서클 대화를 진행해주신다. 교사 간 만남의 날이 한 학기 일정 안에 계획되어 있으며, 학기말 마무리 평가 활동도 서로의 마음이 만날 수 있도록 서클로 진행한다. 또래 조정도 결국 회복적 서클의 철학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큰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서클 대화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조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관계회복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래조정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지지해주시는 위클래스 선생님, 학폭 사안을 관계 회복의 기회로 생각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는 담임 선생님, 교직원 서클 준비를 함께하는 T/F팀, 교직원 서클이 열리면 귀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서클 실천을 지지해주시는 교감·교장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의 열정 어린 참여 덕분이다.

사람이 곧 시스템이다.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가꾸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기에 신흥중학교 관계회복 학교 시스템이 더욱 귀하고 소중하다.



마음과 마음을 잊는 학교 간 통합교육

인천연일학교 중등특수교사
김애란

비대면 통합교육의 출발

2021년 3월, 한 해의 통합교육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며 저는 연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잔뜩 기대에 찬 눈으로 “선생님! 송도 고등학교 친구들 언제와요?” 물어보는 학생들에게 “얘들아, 정말 미안해.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연일학교는 연수구에 이웃한 송도고등학교와 통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매 학기 송도고 학생들이 직접 연일학교에 방문했고, 연일학교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나누며 든든한 또래 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모든 대면 활동이 멈추면서 결국 2020년, 통합교육도 중단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미 1년의 공백기가 생긴 상황에 한 해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지자 이젠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를 기다리고 있자니, 학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마냥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통합교육의 장을 잊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 고민으로부터 비대면 통합교육은 출발했습니다.

서로의 곁에, 교육공동체

비대면 통합교육 구성 초기,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은 함께 할 협력 학교를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비대면 운영의 특성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발로 뛰고, 땀 흘려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이 무색할 만큼 많은 학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고, 이렇게 5개 학교가 연일학교와 통합교육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쌓아가는 ‘또래 관계 통합교육’

송도고등학교와 함께한 또래 관계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 건강한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교류의 장을 정비하고 다시금 뜻깊은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허둥지둥 만나서 몇 가지 활동을 하다 종료되는 단발성 활동이 아닌, 1년이라는 긴 흐름 위에 차곡차곡 관계를 잘 다질 수 있도록 학기당 2회, 총 4회기로 구성했습니다.

●● 마인드 노크 영상 촬영 (2021.05.12.)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른 채,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말하는 첫 만남은 학생들에게 너무 인위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활동이 바로 ‘마인드 노크’ 활동입니다. 어색한 첫 만남을 즐거운 긴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좋은 질문이 담긴 카드를 제공했고, 학생들은 질문에 답하며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 생각만으로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어떤 급식이 나올 때 가장 기분이 좋나요?

22명의 학생이 개인 인터뷰 영상을 촬영했고, 이 개별 영상들이 모여 서로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1개의 영상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인드 노크 영상을 통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서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이 활동은 이후 또래 관계 통합교육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행운을 전하는 음성 편지 만들기 (2021.06.23.)

2번째 활동은 음성 편지 만들기 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은 1회기에 촬영한 마인드 노크 영상으로 서로를 떠올리며, 한 문장, 한 문장에 진심을 담아 음성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무조건적 행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급식이 나오길 바라주기도 하며 직접 만난 적 없는 서로를 위해 각자의 목소리로 행운을 전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 무지개가 뜨듯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 때가 있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영상을 보니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운’의 의미처럼 이 편지를 듣는 친구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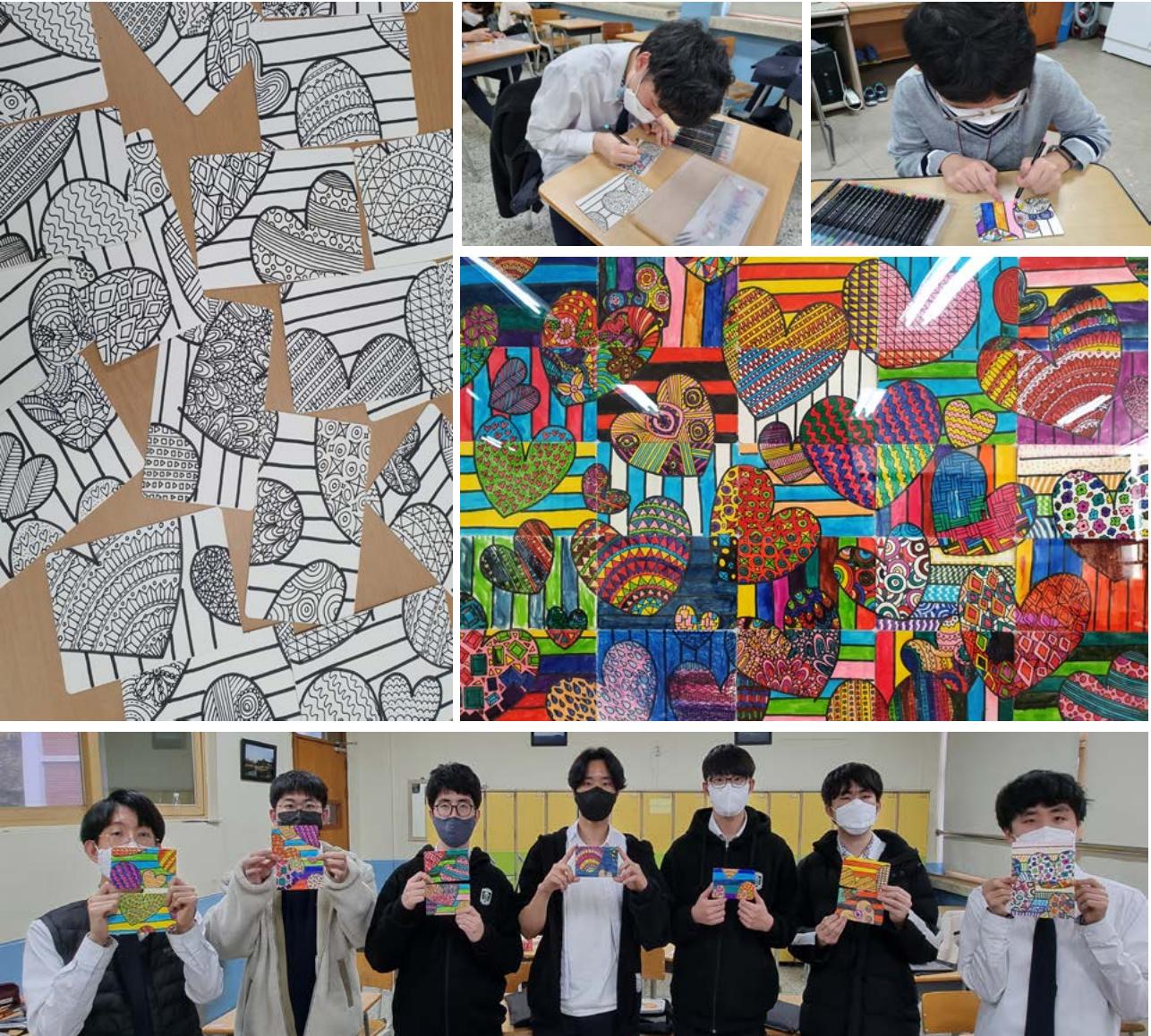
● MZ세대 선물 교환하기 (2021.09.15.)

학생들에게 서로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또래임을 체감할 수 있는 선물이 없을까 고민하다 핸드폰 뒷면에 부착하여 거치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립톡’을 떠올렸습니다. 핸드폰이야말로 지금 학생들의 삶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흔한 그립톡이 아닌 정성이 담긴 그립톡을 제작하기 위해 보석 십자수형 그립톡을 만들어 서로에게 선물했습니다.



● [하나 되는 마음] 협동화 만들기 (2021.10.20.)

마지막 활동은 협동화 만들기 활동이었습니다. 26개의 종이 타일에 협동화 도안을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채색했습니다. 학생들의 손끝에서 무채색 도안은 화려한 색을 입기도, 새로운 무늬를 입기도 하며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내 종이 타일과 이어지는 타일이 어떤 색일지, 누가 칠하는지 모른 채, 그저 멋진 작품을 만들자는 예쁜 마음들이 모여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채색된 26개의 종이 타일은 '하나 되는 마음'이라는 1개의 멋진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전하는 ‘문화예술 통합교육’

문화예술 통합교육은 코로나19로 지친 학교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연일학교 주변의 초등학교 2곳(연수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과 중학교 2곳(간석여자중학교, 연수중학교)이 함께했습니다. 연일학교와 각 학교가 일대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닌, 5개 학교가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보다 알찬 문화예술 통합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발코니 오케스트라] 공연 (2021.06.09.)

문화예술 통합교육의 첫 여정은 연수초등학교의 발코니 오케스트라 공연이었습니다. 6월의 여름날, 연수초등학교의 오케스트라 [연수피아] 학생들이 직접 악기를 들고 연일학교 교정을 찾아와주었고,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서 40여 분간 멋진 선율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은 잔디밭과 운동장에 자유롭게 흘러 앉아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찾아가는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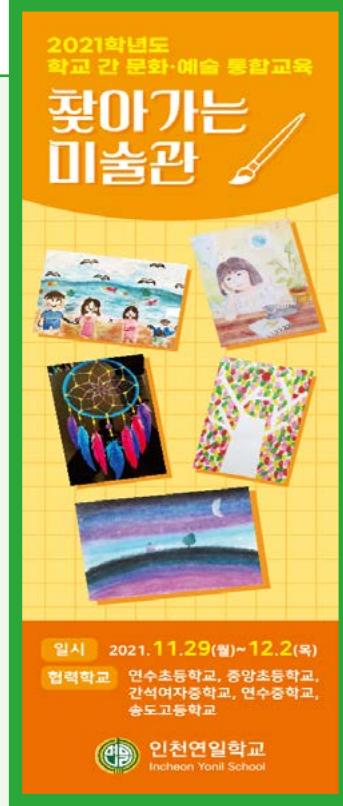
학생들은 문화예술 통합교육에 참여하며 다양한 주제, 다양한 재료로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나만의 작품을 구상하고, 공들이며 완성하는 과정은 결과물과 관계없이 그 시간만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다독여주었습니다.

또한, 5개 학교의 작품이 5개교에 순회 전시되면서 학생들은 ‘내가 만든 작품이 전시되는 기쁨’과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소속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에 손잡고, 통합교육

누구도 가본 적 없어 조심스러웠던 ‘비대면 통합교육’의 여정은 학생들과 선생님의 손끝에서 뜻깊게 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안전하고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교육환경에서 통합교육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장애 학생에게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였고, 장애 학생에게는 맞춤 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한 번도 모인 적 없이 오직 서로를 위하는 ‘같은 마음’들이 모여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고민했던 시간처럼, 부디 이후에도 마을공동체 안에서 통합교육의 물결이 멈추지 않고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현장과 함께 준비하고 실천하는 교육회복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회복지원팀장 윤영준



교육회복이란 무엇인가?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누적된 교육결손 회복이 필요하다는 각 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또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회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회복(回復)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을 의미한다. 교육부와 교육 청의 정책으로서 정의되는 교육회복의 의미는 '코로나 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교육결손을 종합적으로 극복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일상복원이 아니라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등교 제한 등으로 교육 전반에 미친 악영향이 막대함에 따라 교육회복과 관련한 요구도 다양하다. 학부모와 교원은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 과학습 역량 보완을 가장 희망했고, 학생의 경우 또래활

고2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22.6., 교육부)

동·교육체험학습 지원 등 학生活동에 목말라 했다. 그 밖에도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라는 우려, 팬데믹 기간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온라인 상담 건수의 증가, 원격수업을 통한 학생의 사회성 함양은 어렵다는 분석, 청소년의 신체 활동은 줄고 게임에 과몰입하는 청소년의 신체 건강에 대한 걱정 등 코로나19는 우리 교육 현장과 학생들에게 전방위에 걸쳐 가장 큰 결손을 안겼다. 따라서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한 대규모 교육예산 투입을 비롯한 종합적·적극적 교육회복 지원이 절실히 분명하다.

교육회복은 공감을 얻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 교육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 사업으로서의 교육회복지원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는 누가 어떤 일은 담당하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업무부담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연 교육회복 업무는 누구의 일인가?” 우리는 때때로 조직 내에서 모두가 연관된 일이 누구의 일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를 경험하곤 한다. 교육회복지원은 교육결손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다.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방역부터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 건강 등 각 영역의 결손 회복은 물론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까지 전방위에 걸쳐 전개됨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연관되어 있음에도 교육회복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새로운 업무 부담이라는 인식 탓에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갈등이다.



때문에 정상등교가 시작되고 교육회복 추진이 본격 가속화되는 지금, 교육회복 추진은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나 실질의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할 것이다.

현장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지금 학교는 비로소 정상 등교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고 있다. 단체활동은 소규모에서 중규모로 규모를 늘려나가고, 운영 방법은 비대면에서 대면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며,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정상등교와 함께 그간의 누적된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엔 학교 현장의 여력이 부족하고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지원과 컨설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컨설팅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컨설팅은 이처럼 현장의 어려움을 돋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지만, 학교에는 그간 현장지원과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과 인식이 누적되어 있다. 컨설팅을 위해 관련 실직을 정리하고 제출하는 부담을 안았고, 제출한 실직을 평가받아야 했으며, 때론 평가 결과를 지적받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교육회복 학교현장지원단은 이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작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교육회복 학교현장지원단은 교육회복 사업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증진과 단위 학교 안착을 돋고 교육회복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먼저 지난 3월 일선 학교 교사, 교감, 장학사를 대상으로 5개 영역(학습결손 회복, 몸과 마음 회복, 직업계고 취업 지원, 취약계층 맞춤 지원, 교직원 치유) 55명(초등 27명, 중등 28명)의 현장지원단을 선발하였다. 현장지원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컨설팅의 이론과 실제, 교육회복 사업의 방향과 중점을 주제로 자체 연수를 선행하였고, 지난 4월부터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현장지원단 컨설팅은 크게 정기/수시로 구분하여 정기 컨설팅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회복 관련 현장 의견 수렴 중심을 지역별/학교급별(1차), 전문 분야별(2차)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시 컨설팅은 현장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 수렴한 현장 의견을 환류하고 학교별 우수사례 공모전 및 발표회를 통해 일반화하는 것 또한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장지원단은 컨설팅을 위한 자격이나 역량을 갖춘 전문가라기보다 교육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선도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전달

하는 하향식 연수보다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추진할 때 개선 및 애로사항을 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의 각종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회복 사업을 실천하는 곳은 결국 학교이기 때문이다.

교육회복은 이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으로 정상 등교를 시작한 시점부터 교육회복은 본격화 되어야 한다. 그간 누적된 교육결손과 격차가 굳어질 때 개인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피해보다 막대하고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습, 심리·정서·신체건강, 사회성 등 3대 중점 분야를 5~7월 집중 추진한다. 곤이어다가 올 방학기간에도 중단 없는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모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 및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각종 진단 사업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고, 교육가족과 시민에게 교육회복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회복지원 사업이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지원과 함께 세심한 추진이 필요하다. 회복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이 있지만, 연착륙을 위한 속도 조절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귀담아들어야 할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 2015~2022

2015년 연구과제명

- 2015 행복배움학교 1차 년도 성과 분석
- 2015 인천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15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2015 행복배움학교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201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모학교에 관한 운영 실태 분석 및 제언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모 사업 실태 분석(현장교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학교혁신 정책 연구 사례집
- 국제 이해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
- 초등 평가 방법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창의·공감교육을 통한 미래형 학력
- 지역사회 연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6 연구과제명

- 2016 행복배움학교 성과분석 연구 : 2년차 행복배움학교 구성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 2016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공모 사업 평가 모델 개발 연구
- 창의·공감교육을 위한 인천시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 교원연수 실태분석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관리 실태 조사
- 방과후학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인천교육 중·단기 발전방향 연구(1차년도)
- 공감100°C 민주적 학교 운영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 평화의 길을 여는 윤리적 생활공동체 문화 만들기
-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야기
- 그린마일리지(상별점)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6 연구과제명

-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인천 수업 정책의 방향성 고찰(초등)
-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문화 조성 방안(중등)
-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인천 수업 정책의 방향성 고찰(초등)
-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문화 조성 방안(중등)
-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사례 모음집
- 학교업무 정상화 매뉴얼
- 인천형 교원연수모형 개발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2차) 개선방안
- 인천형 학교혁신문화 측정도구 개발
- 인천 생태환경평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연구
- 학교와 지역 간 마을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 인천형 교원연수 모형 후속 연구

2017 연구과제명

- 행복배움학교 발전 방안 연구
- 2017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유아체험시설 설치 방안 연구
- 위기학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
- 교무행정지원팀 실효성 확보를 통한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
-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실태 분석
-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 인사정책 개선 방안
-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요소 개발 연구
- 고등학교 핵심역량 기반 평가모델 연구 - 교과별 성취기준 연계를 중심으로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교무학사 · 행정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서식 표준화 연구
- 중학교 신입생 반배치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정책 탐색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 정책 평가 모형 연구
- 초등 예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러닝 활용 방안
- 인천교육 중기 발전 방안
- 인천 원도심 지역 교육 실태 및 발전 방안
- 미래학교 환경 및 공간 구성 방안 연구
- 초·중·고 진로교육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 학생자치활동의 실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례 분석을 통한 인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 지역(마을)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2018 연구과제명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개선
- 인천 학교혁신 실태조사 - 교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교직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사양성 개선방안
- 인천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인천 학교평가지표 개발 연구
- 교장공모제 내실화 방안 연구
- 고등학교 교과별 과정중심 수행평가-기록 개선 방안 연구
-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인식조사 및 방안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 개선 방안 연구
- 미래교육에 대한 교사역량 개발 방안 연구
- 지역 산업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대학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발전 방안
- 인천시 국공립유치원 교육여건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교직원의 학교 적응 지원 방안 연구
-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 인천광역시 기초학력보장 정책 추진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 인천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례 연구를 통한 활성화 지원 방안
- 학부모 학교 민원 실태 분석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지원방안 연구
- 학교 환경과 공간 구성 방안
-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생활종합실태 분석을 통한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2019 연구과제명

-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생활종합실태 분석을 통한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발전 방안
- 인천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안 연구
- 인천 중·고등학교 구성원 성인지감수성 실태조사
- 빅데이터 기반 인천교육정책 지원 방안
- 동아시아시민양성을 위한 인천형교육과정 개발
- 평화통일 교육의 실태와 방향성
- 필수 연수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 인천교육균형발전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방안
-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연구
- 인천 학생의 생활종합실태분석 및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 인천 학교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분석
- 인천광역시 학생 자살 원인분석을 통한 예방대응방안 연구
- 현장적합성의 재개념화를 통한 초등교원 양성 및 연수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인천 미래학교 공간 혁신

2020 연구과제명

- 동아시아시민교육 정책 평가도구 개발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동아시아시민 진로교육 운영 방안
- 인천광역시 학교폭력 원인 분석 및 교육적 대응 방안 탐색
- 인천 강화군 자원을 활용한 교원 에듀투어
- 빅데이터 활용 단위학교 정보제공 방안
- 인구절벽시대 미래 교육정책 방향
-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학생선거교육 방향 연구
- 인천광역시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의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 인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현황 분석 및 현장 지원 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지원대상 학생 및 출형 지원 방안
- 학교업무정상화 사례 분석을 통한 교원의 직무 여건 지원 방안 연구
-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분석과 AI 플랫폼 구성 방안
- 인천광역시 초등학생의 성장 발달 단계 연구
- 초·중·고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재 개발

2021 연구과제명

-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인천 생태시민교육 발전 방안
- 미래형 행복배움학교 방향 탐색 연구
- 인천교육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재구조화 방안
- 인천 학생의 사회참여 실태 조사
- 인천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 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탐색
- 인천 공립형 대안학교 발전 방안
- 학습자 참여 기반 온오프 블렌디드 수업 방법 연구
-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학생평가 사례 연구
- 코로나19 이후 실습 및 비교과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사용자 경험(UX)기반 교육정책 개발
-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변화 연구
- 인천교육 종기 발전 방안 연구
- 인천교육정책 연구과제 및 정책사업과제 발굴 방안

2022 연구과제명

- 인천지역 산업체의 고졸채용구조에 따른 특성화고 지원 방향 탐색
- 인천 교원 간 갈등 양상 분석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탐색
- 인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방안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방안
- 인천 디지털 소양 교육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 동아시아시민학교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동아시아시민학교 발전 방안 연구
- 기초(기본)학력 보장 체제 구축 연구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업무 시스템 및 조직문화 개선 연구
- 상위학년 진로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개별 연구
- 도서관 기능 복합화 방안 연구
- 과대, 과밀 학교 해소 및 지원 방안 연구
- 2022 학생 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연구
- 교육현안 중심 주제 발굴 및 수행
- 학생생활실태조사 5차년도 기초 분석
- 2023 인천미래교육 정책 및 연구 방향 탐색